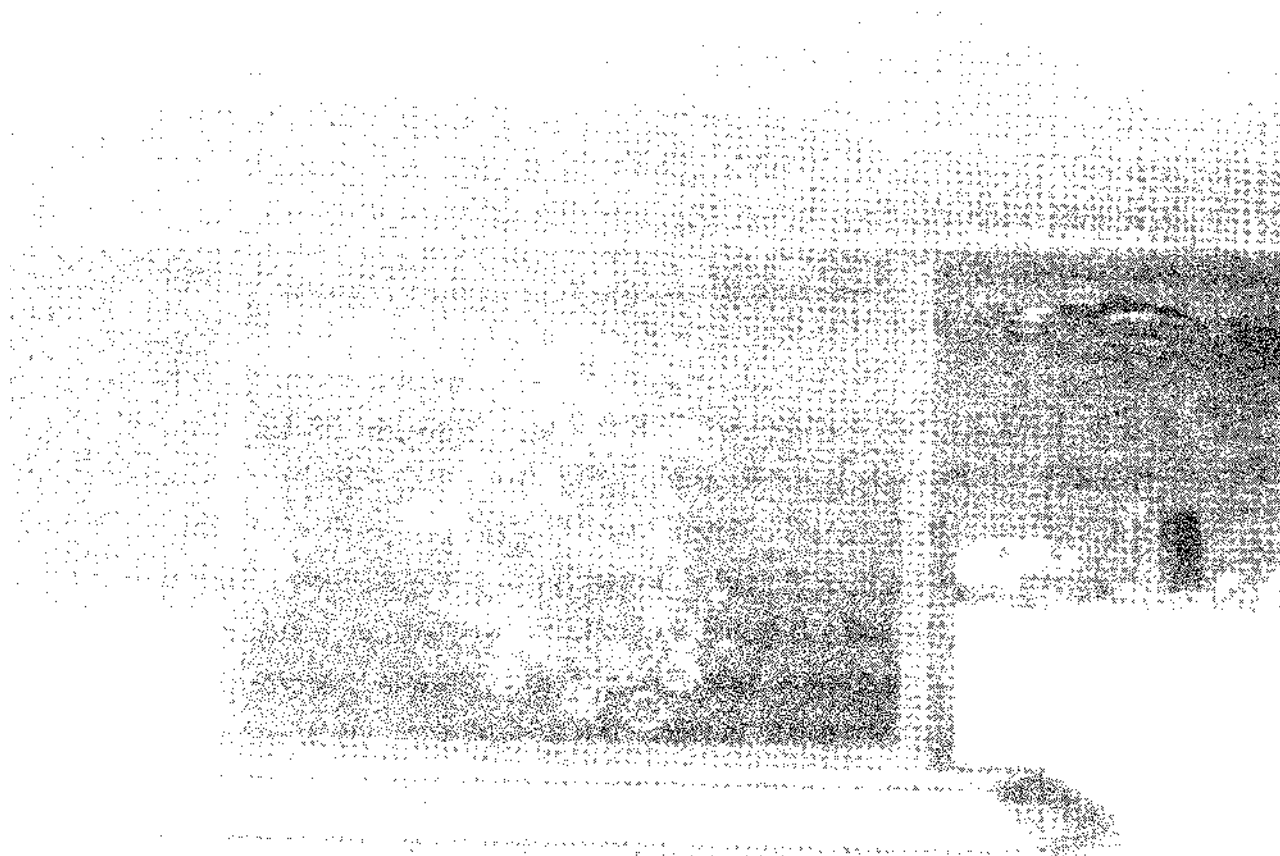


제7편 地域開發



제 1 장 開發方向

제 1 절 도서지역으로서의 우도

우도는 도서지역이다. 인간의 생활공간, 즉 하나의 경제생활단위로서의 도서는 일반적으로 4면이 완전히 수면으로 둘러싸여 본도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도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육지를 지칭한다. 도서는 이와같은 자연지리적 조건 때문에 본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소위 도서지역은 거의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물·불·발」인 것이다. 물은 식수를 비롯하여 산업용수를 말하며, 불은 전기 및 통신시설을 말한다. 발은 지역내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당장 우도만 하더라도 수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기초생활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이 불안정하여 육지와와의 접근성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본도시장으로부터의 격리와 지역시장이 협소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고립성과 폐쇄성 및 교통기관의 미비로 말미암아 문화교류에 제약을 가하여 발전의 주체인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원으로부터 두절케함과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정책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발전의 잠재력을 자생적으로 현재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에 젊은이들의 이도현상을 가속화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의 도서에 대한 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거나 차라리 관심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이름 아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서 각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정책은 변변한 것이 없었다. 굳이 있었다고 해도 새마을 사업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로 인하여 서늘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격감현상이 일어나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19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후에도 정부가 도서지역에 투자한 돈과 관심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우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개발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더 확대하여 말하면 불가피하게 도서지역을 개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국토이용 측면에서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가 4,000만명이 넘어선지는 오래되었고 2000년대에는 5,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밀도면에서 세계의 2,3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국토의 이용률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60년대부터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도시와 공업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도시는 인구 과밀로 걱정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과소라는 양극단적인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말 현재 전 국토 99,274km²중 이용토지(농경지, 공업용지, 대지, 공공용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가 27,000km²로 전 국토 중 27.2%에 불과하고 비이용토지는 72,273km²로 전 국토 중 72.8%나 된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이용되는 국토면적이 점점 많아져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역시 집약적 이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지역의 개발은 국토 이용면적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도는 다른 도서지역과는 달리 육지와 근접한 거리에 있고 지형이 매우 평평하여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도의 개발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도서지역은 마지막 남은 청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즉 지역개발의 보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경제개발 못지 않게 정부의 중요정책 의제로 되어 있다. 국민들도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고 광범위해졌다. 삶의 질 향상이 개발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국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도서지역은 개발의 대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형대로 보존이 가능할 수 있었다. 좁은 국토, 고도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소득향상은 우리로 하여금 맑은 공기·찬란한 햇빛, 그리고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을 갈구케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공간과 햇빛이 한량없이 부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서지역인 것이다.

우도는 현재 제주도내 부속도서 중 유인도로서는 가장 큰 섬이며 우리 나라 유인도 705개 중 인구가 1,000명 이상인 14.7%에 불과한 점을 생각하면 개발의 의의와 잠재성은 여타의 도서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지와 근접성 면에서 육지와는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특히 성산관광개발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도의 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제주지역내의 관광자원이 과거에 비해 한껏 신비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우도는 깨끗하면서도 신비감을 주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도가 지역개발의 대상에서 좀더 많이 투자되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도의 개발방향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우선 우도지역의 자원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원에 대한 평가는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의미 외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자원의 평가는 인문, 사회자원과 관광자원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원평가를 한 후에 우도가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의 우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필자가 여러 차례의 우도 방문과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1991년에서부터 약 3년간 성산포를 중심으로 제주 해안선 개발과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하와이대학교 지역계획과 Karl kim교수와 동행 연구하면서 논의했던 사항도 이 연구에 많은 참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우도가 보유하는 자원의 실태와 평가

1. 자연환경

1) 제주도의 동쪽 끝, 「섬속의 섬」 우도

우도는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牛頭形) 또는, 누워있는 모양(臥牛形)이라고 해서 소섬(牛島)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은 演坪里라 칭해 왔는데 연평이란 이름은 1900년 訓學을 하던 표선면 성읍리 출신 뒗完哲 선생이 「물에 뜬 두둑」이라는 뜻에서 연평이라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우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다시말해 우도는 제주도라는 「섬속의 섬」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7백5개의 유인도서 중에는 76번째로 큰 섬이기도 하다.

< 표 1 > 부속도서를 포함한 제주도 위치에서의 우도

단	지 명	경도 및 위도의 극점	
		경 도	위 도
극 동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비양도)	126° 58' 25"	33° 30' 44"
극 서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126° 08' 45"	33° 18' 31"
극 남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126° 16' 36"	33° 06' 23"
극 북	북제주군 추자면 시루여	126° 22' 08"	34° 00' 00"

출처 : 제주도, 「통계연보」, 1991.

이 섬은 남북 4.9km, 동서 2.8km로 남북이 동서보다 다소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식수는 샘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봉천수에 의존해왔고 근래에는 5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섬머리오름 정상

우도에의 접근로를 보면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면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버스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산포까지의 접근은 약 1시간 걸린다. 그리고 성산항구에서 3.8km 떨어져 있고, 종달리로부터는 2km 떨어져 있으나 성산항구에서 도항선으로 우도에의 접근은 약 13분 정도 걸린다. 따라서 제주시에서 우도에의 접근은 약 2시간 이내라고 할 수 있다.

우도의 생성과정이나 지형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글(윤정수, 우도의 지형과 지질)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겠으나 큰 맥락만 살펴보면, 우도의 경우도 섬의 형성과정은 제주도 본섬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남동해안에 위치한 우도봉을 제외하고는 고도 35m 이하의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2) 면적 및 토지이용현황

우도의 면적은 북제주군 전체면적의 0.8%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71%가 경지로 이용하고 있어 전국 평균 도서경지면적인 28.4%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이다.

<표 2> 면적 및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

전 체 면 적	경 지(밭)	임 야	기 타
6.05 (군면적의 0.8%)	4.3 (71)	0.9 (15)	0.85 (14)

자료 : 우도면, 「업무보고」, 1993년.

전술하였듯이 우도는 평지여서 그와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땅이고 보면 앞으로의 우도의 개발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도의 토지이용형태는 달라질 것이다. 즉, 지금까지 땅콩과 고구마 등 밭작물중심의 토지이용은 1차산업이 사양화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토지이용방향에서 대전환이 요구된다. 토지이용방법이 지역개발전략과 동일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도의 토지이용형태는 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작은 面

우도의 행정구역은 4개 里, 12개 자연마을, 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우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작기로 몇 번째 안에 드는 작은 규모의 面이다. 행정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里로서 천진리, 서광리, 오봉리, 조일리가 있는 12개 자연마을로 영일동, 비양동, 상·하교수동, 전을동, 삼양동, 주흥동, 상·하우복동, 동·서천진동, 중앙동이 있다. 그리고 전체 24개반으로 행정구역은 지정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도에서 활동한다든가 설치되어 있는 일선기관 및 자체조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기관 내지 정부투자기관 등 공식기관부터 살펴보면 우도면사무소와 4개의 里에 이사무소가 있다. 면에는 면개발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우도면위원회 등이 있고,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협의회와 그 외의 통제관협

의회, 기관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이 있다. 학교로는 연평중학교, 연평초등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없다.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서 우도농협, 우도축협, 우도지서, 우체국, 전화국, 한전출장소, 등대,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비공식기관으로는 어촌계, 새마을지도자 우도면 협의회, 의용소방대, 국제승공연합 우도지부, 각 청년회, 농민후계자 협회, 각 부인회, 체육회 등이 있다.

인구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86년도부터 면으로 승격됨으로써 인구와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 행·재정지원이 훨씬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외부의 선진문화와 정보의 이식, 소비시장의 확대 등은 앞으로 우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含 義

우도는 우리 나라의 여러 섬 중 사람사는 섬에서는 76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으로 볼 때 개발과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 후 관광객이나 그외 기타 생산방식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개발에 앞서 우선 사회간접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회 기반시설은 우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적절한 항구의 시설이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해돋이나 일몰 등을 다 볼 수 있고, 바다와 평지 그리고 오름(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하더라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2. 인문사회환경

1) 주민이 요구에 의해 개발되어 왔던 역사적 환경

우도는 원래 무인도로서 조정에 진상할 소를 가두어 기르던 곳이었는데, 땅이 비옥하고 해산물도 풍부하여 1800년 초경부터 사람들이 입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조 이후 본토민들의 진정으로 인해 목장이 개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식으로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따라 주민의 요구로 현종 8년(1842년)의 <우도와 가파도의 人耕許可>가 농경의 시작이며, 현종 10년(1844년) 진사 김석란이 벼슬을 그만두고 자청하여 이곳에 정착, 개간한 것이 개척기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도의 개발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조선 초기에는 濟州牧의 좌면의 일부였다. 1974년 좌면에서 분리되어 구좌면의 일부가 되었다가 1986년 4월 1일자로 구좌면에서 분리되어 우도면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2)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람은 토지 위에서 거주하고 토지 위에서 활동한다. 편리한 효율을 추구하는 인간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각종 시설을 토지 위에 설치하게 된다. 지역개발이 인구이동을 유인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인구를 축출할 수 있음은 바로 그 지역의 토지가 정주하는 지역주민에게 타지역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가와 비례한다. 지역의 인구는 개발의 주체요 대상이기 때문에 거주 인구의 질과 양은 그 지역개발의 질과 양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도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과 전입·전출은 우도지역개발의 잠재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1) 절대인구의 감소

우도인구는 매년 크게 줄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면으로 승격되던 해인 1986년도에는 3,326명이었던 것이 1993년도에는 2,243명으로 7년만에 약 33%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감소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는 앞으로 우도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면으로 승격된 이후에 더욱 인구가 축소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표 3〉 우도면의 인구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인 구	3,326	3,283	3,254	3,244	3,210	3,210	3,007	2,243
남	1,591 (47.8)	1,531 (46.6)	1,532 (47.1)	1,491 (46.0)	1,495 (46.6)	1,495 (46.6)	1,413 (47.0)	1,032 (46.0)
여	1,735 (52.2)	1,752 (53.4)	1,722 (52.9)	1,733 (54.0)	1,715 (53.4)	1,715 (53.4)	1,594 (53.0)	1,211 (54.0)

주 : 각년도 초에 만들어진 우도면 「면정보고」, 「업무보고」.

인구 이동이 지역의 편이성과 패적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 지역개발의 이론을 원용해 볼 때 우도지역의 지역개발환경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해가는 상태임을 짐작케 한다.

(2) 빈약한 경제활동인구

우도의 경제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4〉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15세 이상의 인구를 칭한다. 우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1,811명으로서 우도인구 2,225명 중 81.4%로서,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73.0%(1991년 4/4분기현재 : 1992년 북제주군 통계연보 참고)보다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 이 15세 이상의 비율은 취학아동인구인 15세 이하의 인구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도의 경우 취학아동인구인 15세 이하의 인구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진학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제주본도로 자녀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이 전부 옮겨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타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표 4〉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1993년 7월 7일 현재)

(단위 : 세, 명, %)

연령 구분	계	남	여
계	2,225(100)	1,036	1,189
0 - 4	85(3.8)	39	46
5 - 9	120(5.4)	62	58
10 - 14	209(9.4)	100	109
15 - 19	319(14.3)	166	153
20 - 24	296(13.3)	156	140
25 - 29	146(6.6)	89	57
30 - 34	106(4.8)	69	37
35 - 39	94(4.2)	51	43
40 - 44	104(4.7)	56	48
45 - 49	104(4.7)	51	53
50 - 54	144(6.5)	61	83
50 - 59	146(6.6)	67	79
60 - 64	119(5.3)	28	91
65 - 69	77(3.5)	19	58
70 - 74	66(3.0)	12	54
75 - 79	42(1.9)	8	34
80 - 84	27(1.1)	2	25
85 이상	21(0.9)	0	21

주 : 이 표는 1993년 7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분석한 것이다. 앞의 표에서는 감소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일년 중 같은 시기의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1993년 7월 7일 현재 상황을 쓰지 않았다.

자료 : 우도면 내부자료.

그리고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 중 가장 왕성한 연령인 15 - 49세의 인구는 전국이나 제주도상황에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1차산업에서도 65세이상의 인구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지 못

한다. 이렇게 우도는 전국이나 제주도 현황에 비하면 노인인구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도에서 인구와 관련한 정책은 우도의 사람들을 우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즉 우도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청장년 층의 남자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것이며, 직업을 찾아 본토나 혹은 육지로 떠나는 직업편향(job bias)이 적게 될 것이다. 또한 역으로 그러한 정책이 있게 되면 우도출신 청장년 층이 타지에서 다시 우도로 전입해 오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인구피라미드는 경제활동인구가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우도의 경제는 생기있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표 5〉 인구구조의 비교

(단위 : %)

구 분	전 국	제 주 도	우 도
연 령	100.0	100.0	100.0
0 - 14세	25.8	25.5	18.0
15 - 29세	30.4	32.6	34.0
30 - 49세	27.6	25.4	18.0
50 - 64세	11.2	10.8	18.0
65세이상	5.0	5.7	10.0

주 : 전국과 제주도는 1990년도 자료이나 우도의 경우는 1993년 7월의 자료이다. 이는 우도의 자료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전국과 제주도의 자료는 최근의 자료의 부재로 인해 1990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음

우도의 경우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다. 우도의 인구는 이러한 결과와 절대적인 인구수의 절감에 의한 것 때문에 인구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1989년 당시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출인구가 전입인구에 비해 거의 100%가 더 많았다.

〈표 6〉 전입전출인구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계	남	여	계	남	여	도내	도외	기타	도내	도외	기타
1989	141	68	73	275	132	143	65	76	-	131	144	-
1991	163	92	71	257	124	133	80	83		148	109	

자료 :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0년.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2년.

인구의 이동은 선별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즉, 인구의 이동자는 다른 사람들 보다 교육정도가 높고 더욱 건강하며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이동자들이 이동 전보다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출발지로서의 우도는 인구를 유인하는 요인보다 밀어내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 된다.

물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입에 비해 전출 비율의 증가는 둔화되는 편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을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찾아 보면, 나갈 사람 즉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간 반면에 도내나 도외로 전출했던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매력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전입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남자보다 여자가 많음.

〈표 7〉 가구 및 인구구성

(단위 : 가구수, 명, %)

가구수 및 인구	바 양 도	마 라 도	가 파 도	우 도	추 자 도	제주도※※
가 구 수	67	27	209	666	1,113	130,542
인 구 수	291	99	850	3,244	5,208	516,946
남 자	142	52	439	1,491	2,672	
여 자	149	47	411	1,733	2,536	
평균가족수	4.3	3.7	4.1	4.9	4.7	4.0
평균가족수※	3.3	2.3	3.1	3.0	-	-
성 비	104.9	90.4	93.6	116.2	94.9	104.0
성 비※	93.2	107.7	90.6	113.0	-	-

주 : 여기에서 성비란 남자 100명당 여자의 수를 나타낸 것.

※ : 표본조사에서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만 기준으로 한 자료.

각 유인도의 표본은 비양도 26가구, 마라도 12가구, 가파도 85가구, 우도 148가구이다.

※※ : 제주도, 『통계연보』, 1990.

자료 : 우도면, 『년정보고』, 1989.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282.

성비에 있어서 우도는 다른 도서와 비교할 때 유독 여자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추자도의 경우 94.9%이나 제주도 평균성비인 104.0%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여자들은 어느 정도 농업과 부분적인 어업을 통해서 적응해 가고 있으나, 남자들은 어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 어업 또한 영세하여, 일자리가 없어 놓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제주본도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3) 반농반어 형태의 직업구조

우도의 산업구조는 주로 1차산업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대체로 농사와 어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도의 경우 경지면적, 즉 밭이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에 많이 의존할 것 같지만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주문화방송국과 제주도가 표본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생산연령 인구층의 직업구조

(단위 : %)

사 부 직	도자 소 매영	판 매 직	서 비 스	농· 어 업	농 업	어 업	해 녀	학 생	단 노 순무	군 인	주 부	기 타	무 직
5.0	6.0	0.3	1.3	13.3	28.7	4.3	14.3	10.0	2.7	1.1	6.8	1.1	4.7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301.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총 비율은 59.6%이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만 하는 경우는 28.7%이고 순수하게 어업만 하는 경우는 18.6%이다. 반농반어의 직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13.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면 우도의 1차산업의 구조는 반농반어의 구조를 띠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면이 바다라는 요인이 있지만 현재 제주도 인구 중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990년도 현재 42.0%,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29.5%(전국 9.5%)임을 고려할 때 산업별 고용인구의 조정이 시급하다. 즉,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증대시키는 방안만이 우도가 적당한 인구가 거주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직업구조 속에서 농업과 어업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1차산업 중에 어업부문에서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우도의 주요 수산물 판매실적(1990년 현재)

(단위 : 톤, 백만원, %)

종 류	수 량	금 액
우 뭇 가 사 리	407.9 (60.7)	1,046 (57.0)
툰	49.5 (7.4)	91 (5.0)
성 계	4.7 (0.7)	150 (8.2)
오 분 자 기	11.0 (1.6)	145 (7.9)
소 라	13.1 (2.0)	107 (5.8)
어 류	20.2 (3.0)	121 (6.6)
기 타	165.4 (24.6)	175 (9.5)
계	671.8 (100.0)	1,835. (100.0)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308.

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 주민들의 소득에는 우뭇가사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외에도 지역특산물인 넓미역이라는

미역종류의 해초도 있는데 판로가 없어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개방화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값이 싼 해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볼 때(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음) 현재 우도의 산업구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절대적으로 열악한 평균소득

우도의 경우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721.8만원으로 비양도보다는 적지만 마라도나 가파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해보면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 물론 자금자족하는 부분과 지출부문에서 도시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수준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체내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결핍감이 그리 심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우도주민들도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보면 월평균소득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10〉 가구당 연, 월 평균소득

(단위 : 만원)

구	분	표본 가구수※	가구당 1년간 평균소득	월평균
비	양	25	942.8	78.6
마	라	9	352.9	29.4
가	파	79	702.1	58.5
우	도	143	715.8	59.7
전 체 평 균		256	721.0	60.1
도시근로자가구		-	-	115.8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308.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2년.

지역간 소득의 불균형은 인구이동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자본축적이 점점 적어
 집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소득원 창출이 지역개발 정책

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舍 義

우도는 인문 사회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발의 잠재성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전출 인구의 과다와 능력있는 경제인구의 부족, 시내에 뒹진 산업구조와 고용인구비율, 소득의 빈곤 등은 타지역에 비해 우도의 장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의 상태는 분명히 우도의 장래를 어둡게 하지만 개발정책에 따라서 지혜를 모은다면 회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례로 인구의 감소는 지역개발에 때로는 이점을 안겨 줄 수 있다. 타지역에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인구당 정착지 면적이 늘고, 외부로 가는 사람의 송금으로 인하여 지역소득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도에는 본적지 중심으로 볼 때 해외를 비롯한 육지에 소위 우도인들은 1/3, 도내에 1/3, 우도에 1/3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본과 경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도 출신이 우도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있다. 뿐만 아니라 우도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유·무형자원이 될 수 있다.

3. 관광자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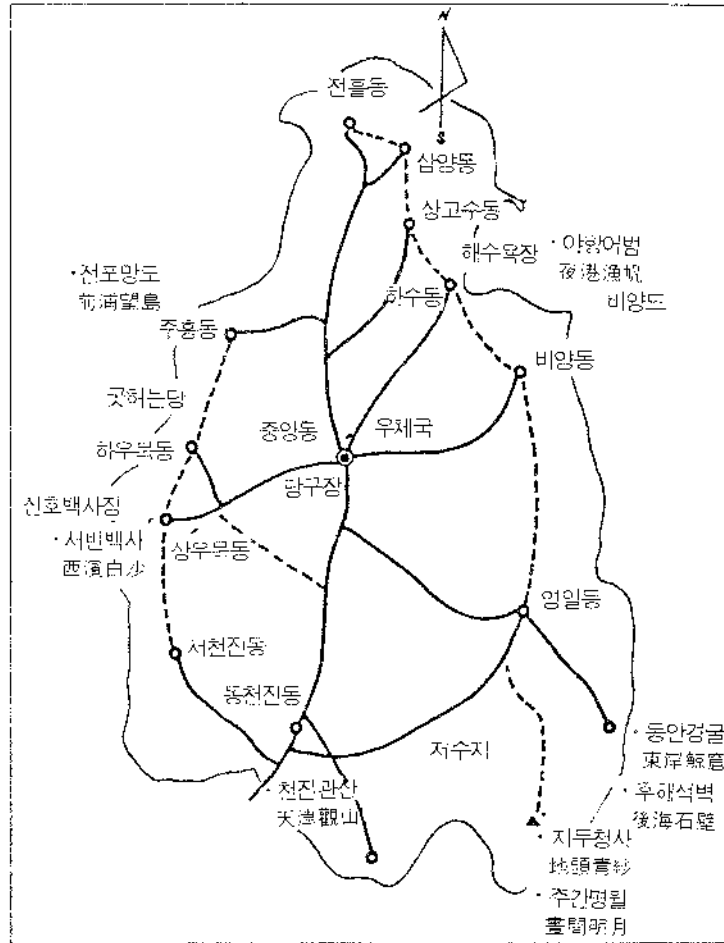
1) 기존에 개발된 관광자원

우도의 관광자원은 牛島八景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도에서만 볼 수 있는 여덟가지의 경치이다.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우도 전지역에 걸쳐 골고루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각각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주간명월(晝間明月) : 섬의 남쪽 “광대코지”라고 하는 기이한 암벽 밑으로 해식동굴이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푸른 빛깔의 투명한 바다위로 햇빛이 쏟아지는 수중동굴안에는 둥근 달이 하나 떠오른다. 이를 주간명월이라 하는데, 이 곳 주민들은 달그라안(돌 그리안)이라고 부른다.

(그림 1) 기존에 개발된 관광자원



○ 야항어범(夜航漁帆) : 6-7월, 여름밤의 별치잡이 어선들이 수십척 부리를 지어 고기잡이를 하는 광경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별꽃들이 피어나는 듯하다.

○ 천진관산(天津觀山) : “하늘이”라고도 하는 우도 도항의 관문인 천진동에서 한라산을 바라나 본 정경으로 한라산 봉우리들이 하늘을 부르는 듯하다.

○ 지두청사(地頭靑紗) : “물위에 뜬 둔덕” 우도봉에 올라보면 황홀한 초록빛 물결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곳에 서면 우리의 몸은 온통 푸르게 물이 든다.

○ 전포망도(前浦望島) : 구좌읍 종달리 앞쪽 바다에서 섬을 본 정경을 전포망도라고 하는데, 우도의 모습이 물위에 소가 누워있는 듯하다.

○ 후해석벽(後海石壁) : 높이 20여m, 폭 30여m의 우도봉 앞 기암절벽이다. 오랜세월 풍파에 견디며 인고의 잔주름을 키워온 듯 차라리 여유스럽기까지 하다.

○ 동안정굴(東岸鯨窟) : 우도봉 아래마을, 영일동의 검은 모래가 있는 「점말레」해안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 굴속의 굴 이중동굴로 이루어진 이곳은 썰물이 되어서야 입구를 찾을 수 있다. 들어가는 굴은 작지만 안에 있는 굴은 별세계를 연상케 하듯 넓다.

○ 서빈백사(西濱白沙) : 우도 서쪽 서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가 되는 해안에 부서져 형성된 모래사장, 이 산호모래는 조금씩 자라난다고 한다. 눈이 부서 잘 뜨지 못할 정도로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감도는 듯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관광자원을 보면 모두 경관과 관련된 자원들이다. 이러한 경관위주의 자원은 시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개발로 인해 그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차후에 여러가지 시설로 인해 상실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관위주의 자원은 보존하고 문화자원이나 관광시설위주의 가족단위로 즐기는 자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발가능한 자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우도의 자원을 개발할 때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나 시설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섬속의 섬」, 演坪이라는 말은 「물위에 뜬 두둑」, 「아껴놓은 새 땅」(이 말은 필자가 만들었음) 등 우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들은 너무 곱고 아름답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의 이미지를 모아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려는 시상정립(city image)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도의 경우도 우도의 이미지를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립된 이미지가 우도의 훌륭한 하나의 문화측면의 관광자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담, 주거문화, 육지나 제주본도와 차별화된 음식문화, 바다와 관련된

노동요를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당, 바다에서 보는 해안절경, 삶의 모습이나 삶의 문화와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서 저녁 고기잡이 배에 승선해서 낚시도 즐기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 앞으로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한 후에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보에 주력하는 것은 개발한 상품들을 가치있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3) 숲義(「아껴놓은 새 땅」)

우도는 우도민이 스스로 아껴놓은 새 땅이다. 제주도 내에 있는 아름다운 것, 아껴두고 싶은 것도 본도의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도에 가면 이질적이고 제주본도에서 볼 수 없는 이제는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들이 있다. 우도의 개발은 이처럼 제주본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과거와 현재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실체들을 우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맥락에서 우도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껴놓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도를 우도다운 개발, 우도의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도 우도의 신비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는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주민들에 의해서 아껴놓은 땅이 되었으며, 이제는 이 새 땅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도답게 적극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도는 우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도인들에게는 만족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4.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우도에 대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자원환경에 대해 주마간산격이나마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모색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은 개발에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발의 근거가 되는 자원으로서 어떠한 불리한 점과 이점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개발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자원

가) 행정구역과 개발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 행정

구역상 우도는 북제주군이다. 따라서 남제주군인 성산포와 행정상 관계가 없어 지역개발에 관한 협조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과 관련된 성산포권계획에서도 우도는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관광단지계획에서도 제외되어 도서로서의 관광개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5년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어우러져 만든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 성산포 해양단지개발계획에는 우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그리고 1993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시에도 성산포권에는 우도와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우도를 도서로서 개발하는 입장에서 성산포권과 연계하여 개발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도는 제주도 관광은 물론 성산포관광권과 코스관광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코스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적지(destination)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말았다.



우도항 정류소에 주차중인 정기버스

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도서로서의 우도를 개발하는 데에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불」의 경우, 현재는 중달리로부터 수중연결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용량 확충의 문제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도서지방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물」의 경우는 도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도의 경우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인데 이 상수도로서의 물을 끌어들이는 문제, 개발자원으로서 쓰이는 물의 공급문제 등 물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음은 「발」에 해당하는 교통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통신도 문제가 있겠으나 통신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우도는 육지와 근접해 있고, 전화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어 양질의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유선방송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로 남겠다. 그럼 교통문제는 어떠한가? 현재 제주본도와 의 접근은 도항선 두 척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은 그리 불편한 점은 없으나 앞으로의 수요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인구와 자본이 부족하다. 개발에 있어서 인구와 자본은 개발의 자원으로 서 역할도 하지만 목표이기도 하다. 우도의 인구는 줄고 있다. 특히 남자의 인구가 적어서 개발원동력으로서의 인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도주민의 월평균소득은 59만 7천원으로 도시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인 115만 8천원에 비하면 고작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은 소득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발에 투자될 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와 자본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자원

우도에서 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자원들은 많다. 이 자원들은 우도를 개발하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 내용들을 보기로 하자.

가) 제주도 본도와 근접해 있는 도서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 생산포권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광코스의 목적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리고 제주본도에서 바라보



우도에서 본 일출봉과 오름들

는 우도의 정경도 아름답지만 역으로 우도에서 제주도본도를 바라보는 정경 또한 훌륭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이는 우도가 제주도 본도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로의 정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주요 관광단위와 인접하여 있다는 것과 그러함으로써 관광객유치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설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지금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본도의 관광권과 연계를 이루게 되면 일정한 관광객유치와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이용가능면적이 넓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도는 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험한 지형이나 언덕 등이 없어서 우도 전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개발가능한 토지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가능한 토지면적이 넓다는 것은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과 바다 그리고 해수욕장과 평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레저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도가 어느 한 부문에만 치중해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도 나름대로의 종합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다.

라)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전전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낙후된 우도를 잘 사는 우도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큰 우려가 없는 것은 개발되더라도 지금 제주본도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직한 의지는 개발에 좋은 조건이 된다.

마) 행정구역상 面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개발에 크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면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면단위에 대한 지원을 타면과 동등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행정상의 인력이나 재정상의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차원에 대한 지원은 개발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개발의 방향

1. 우도에 적합한 개발철학의 정립

지역개발의 철학이란 지역개발의 총체적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철학은 개발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며, 지역의 자원동원과 배분방식을 결정한다. 개발의 철학은 지역주민의 삶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미래의 삶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지역개발에서 개발철학의 대립은 당연히 개발과 보존에 관한 것이다.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러한 논쟁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평행선만 긋는 비효율적인 논쟁으로 일관되어 왔다. 오히려 지역내외에 갈등만 증폭시켜 온 것이다. 앞으로 지역개발철학을 논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근거가 나올 것이며, 우도의 경우도 이러한 근거에 적용시켰을 때 부분적인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나 보존이냐를 논할 때는 해당지역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를 했듯이 말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제반여건과 상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인가? 후퇴 혹은 낙후하는 지역인가? 개발을 하려면 잠재력은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주민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후퇴 혹은 낙후하는 지역이면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개발도 지역특성에 맞아야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낙후한 지역임을 알면서도 보존이라는 허울로 대책없이 묶어 둔다는 것은 그 지역을 더욱 낙후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지역개발의 본래의 의미(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도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필자는 우도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우도는 낙후된 지역임과 동시에 침체되어 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잠재력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도의 주산업인 1차산업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잠재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도는 보존보다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우도가 무조건적인 개발이나 수용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발, 우도다운 이질적이고 신비스러운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존만을 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맹목적인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도에서 해안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우도의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관광시설 혹은 수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개발부분과 더불어 사업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글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고민하여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면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도는 섬 속의 섬에 평화로운 해양유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산지역과 연계된 지역개발

1993년 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성산지역의 개발은 남

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일원에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정유형에서 체류형으로,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 유치, 국제규모의 도입시설의 유치 등 1,231,000㎡에 걸쳐 개발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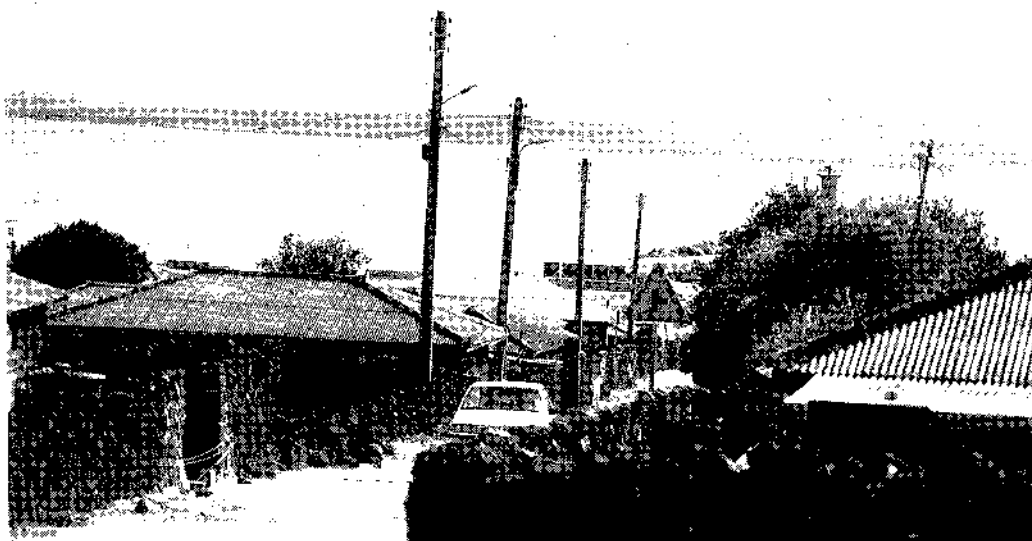
우도는 성산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우도는 지금까지 관광개발의 주요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행정구역상 우도는 북군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우도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포함시켜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중요한 이유를 두 지역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산포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단지에 인접한 섬과의 연계는 규모의 확대라는 점 이외에 그 활용도면에서 무궁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으며, 둘째, 우도입장에서 보면 생활권과 개발권의 일치로 인하여 지역 효율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대한 재검토시에는 반드시 우도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원적으로는 우도지역을 남제주군에 편입시켜 개발권, 생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3.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개발잠재력 확충

1) '불'의 문제

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용량의 자원에서 차후에 확보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불과 관련된 것으로서 전선주가 우도에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급적 우도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화선처럼 전선을 지하로 매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때 불과 관련된 잠재력 혹은 기반시설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다.



열키고 설킨 전기줄과 전화선. 이런 것들이 우도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2) ‘물’의 문제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우도의 경우는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물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우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도라는 도서로서의 관광자원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양질의 물은 상수도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그외의 관광시설로서의 풀장 같은 물이 있어야 하는 시설에 이용됨으로써 육지지방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

방안으로서는 성산포의 물은 염도가 높아 식수나 풀장 등의 물로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중산간지역 중 한 곳을 심정굴착하여 해저관을 설치하고 우도에 상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인 물문제가 해결된다.

3) '교통'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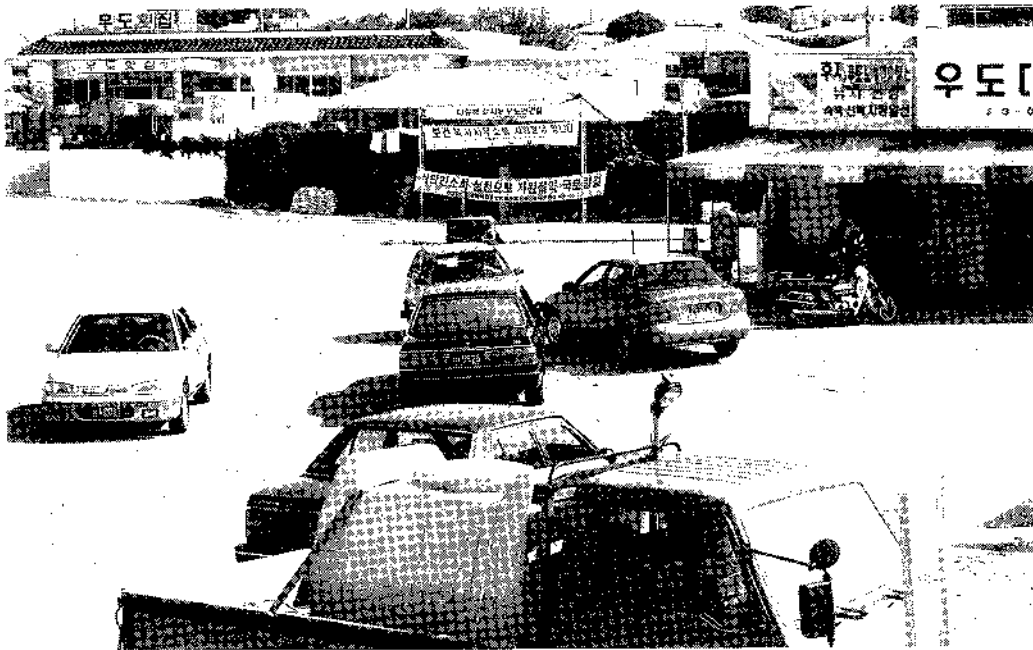


우도항 전경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와 도항선 문제, 그외의 교통수단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항구의 문제이다. 현재 조금만 파고가 높아도 5톤 이상은 피항할 곳이 없어서 성산포로 가게 된다. 그러나 성산포도 크고 작은 배들로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항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항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도는 지형상 큰 항구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새로운 공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무시하면 큰 어항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라 사료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천진항과 하우목동항을 수송과 산업용으로 이원화하여 중점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음은 본도로부터 도항선에 차를 싣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요일같은 경우 극에 달해 하루에 도항선 두 대에서 무려 100여대가 우도에 내려진다고 한다.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왜냐하면 차에 성산포

나 혹은 제주시에서 구입한 음식물들을 가득 싣고 와서 그 남은 오물과 포장에 쓰였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쓰레기문제만이 아니라 우도의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다가 도로의 폭도 좁고 지반도 약한 것이어서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 우도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우도를 자동차들이 다 파괴시키게 될 것이며, 우도의 주요 교통수단인 주민들의 오토바이나 경운기들이 오히려 운행에 불편을 겪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량 유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과 관련되지 않은 차량은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택으로 하루의 기준량을 정하여 그 이상은 차량이 입도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도항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지불케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도내의 상시교통을 확보해야 한다. 도항선의 출항과 입항시에만 비상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우도의 버스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쾌적한 분위기의 버스로 상시교통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도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도 차량의 유입은 우도에 또 하나의 공해로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교통수단은 제주본도와 우도를 연결짓는 교통수단이다. 예를 들면 범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범선의 운행은 단지 교통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헬기의 운항이 바로 그것이다. 헬기장은 천진항에서 우도봉 사이에 만들면 된다. 그 운항방법은 제주시로부터 성산일출봉관광코스를 경유하여 우도에 내릴 수도 있고, 성산포에서 우도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처럼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우도는 좁은 지역이지만 모래사장, 넓은 들, 그리고 우도봉과 기암괴석 등 매우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모래사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도의 모래사장은 섬 속의 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타지역과 다르다. 모래자체도 다르지만 주변의 풍광이 빼어나기 이를 데 없다. 해안도로를 이용한 하이킹코스(자전거코스), 우도봉을 이용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장, 우도앞바다를 이용한 요트장으로서의 활용 등은 종합적인 관광지로써 우도만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도 외부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에 개발된 관광지에 추가로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도의 189만평 중 약 10%인 20만평이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1991년도 우도면 내부자료) 이들로 하여금 우도의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 등을 짓게 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타(영화배우 등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의 몇 곳에 상징적인 시설물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촌이나 영화인들의 휴양을 즐기면서 간단한 촬영도 할 수 있는 휴양시설 혹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파급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휴양단지, 청소년야영장 시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본도나 육지 혹은 외국일지라도 우도와 연결하여 관광권으로 만들 수 있으면 타 관광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페인의 지중해 클럽(현재 회원이 약 100만명)과 연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거의 고정화되고, 국내관광객 수도 예약 등을 통하여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도에 투자된 자본은 안정적으로 회수될 것이며, 우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용이하며, 주민들이 관광지개발로 인한 두려움도 한층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것은 지역주민과 개발과의 연계이다. 지역주민이 자본과 기술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방관자 내지 열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투자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지역개발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슬하계 경험하였다. 지역주민이 생산한 1차 상품을 판매하여 주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멀레 계단에서 본 선돌. 이 또한 관광자원이다.

5. 체계적인 개발계획 정립

여기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정립하자는 것이 국토건설종합계획,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 북제주군 도시계획, 우도계획처럼 관료적 계층체계를 따르는 우도계획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체계상의 계획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듯 하나, 이러한 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점은 상부관청의 지원을 받는 것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규제위주의 계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체계는 우도개발계획을 생산포권과 연계하여 세우든지, 우도개발계획을 제주도차원에서 중점사업화하여 세우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정해상구역(Sea Blue Belt)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계획, 경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장기체류형 관광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는 계획,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계획 등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러가지 문제를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체계화되려면 시기적으로 단·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항구의 확대와 도로의 정비, 상·하수도 시설의 현재화, 양질의 용수공급, 하수 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신설 및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우도의 지역개발은 난맥상을 이룰 것이다. 특히 개발의 과정을 수용하지 못한 채 개발 그 자체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되어 오히려 개발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둘째, 중기계획은 우도의 산업구조개편방향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계획으로서는 우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이용의 방향 및 관광시설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배치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도는 기초가 있는 평화로운 해양휴양단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침체에서 반영으로, 절망에서 희망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 2 장 住 民 參 與

제 1 절 계획의 목적과 설립과정



우도봉 전경

우도지역발전계획(이하 “우도계획”이라 칭한다)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재반관련

법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우도지역에 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발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도서 및 낙도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 126~127)

1. 일 반 원 칙

- 기존의 도서개발 10개년 계획(1988~1997)의 골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서 및 낙도지역의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성 원리를 따르는 않는다.
- 도서군으로 형성된 지역은 중심 도서인 모도와 주변 도서인 자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시키고, 모도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자도는 기초 생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 목 적 :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
- 근거 및 대상 : 도서개발촉진법('89. 12. 31)
- 추진부서 및 기간 : 내무부 1988~1997

2. 주민생활 우선의 원칙

- 주민의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생활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 관광시설의 확충시에는 주민의 생활공간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마을과 연관된 위치에 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마을의 정비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원 개발로 자립기반을 구축시킨다.
-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도를 기지로 하는 문화, 복지 순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수산자원 : 노후어선 대체 및 동력화, 양식사업을 지원한다.
- 도는 평상시 도서지방의 순회 서비스와, 긴급사태시 구조와 구급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지방 전용헬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 주민에 필요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식수 용수원의 개발과 더불어 비상시의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3. 자연환경보존

- 환경자원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전과 불량환경을 개선한다.
- 무인도는 자연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자원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모색한다.

4. 소득향상

- 각 도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소득향상과 연관시킨다.
- 도서의 특성을 이용한 낚시관광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항만의 정비, 소규모의 숙박시설, 특히 민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섬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도서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우도의 발전 및 개발계획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128)

- 주민에게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주체계를 구축한다.
- 선착장과 방파제를 보완하여 연근해 어장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도와의 교통의 편의를 도모한다.
- 주민들의 용수 및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상수도시설 및 저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 도로의 포장, 전기시설의 확충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한다.
- 성산일출봉과 우도팔경을 연계한 해안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제고하되, 개발의 주체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어촌계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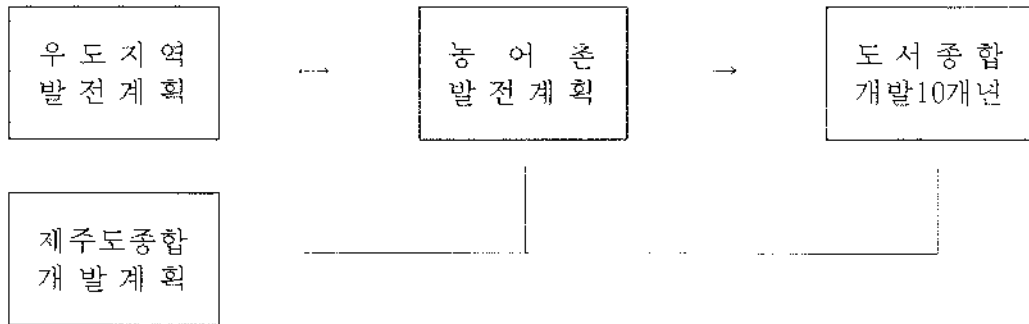
우도봉에서 본 성산일출봉

우도는 지리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도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그리고 필연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사회·토지·교육·복지 등 모든 정책 수립과 실천에 좌우된다. 단지, 우도라는 지역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우도라는 지역의 특수 조건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실천 방향과 사항들을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종합개발계획이 설정하여 놓은 틀 안에서 우도를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실천사항을, 반면에 도 전체와 군전체 정책에 따라야 하는 부분은 개괄적인 면만을 언급하게 된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북제주군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도계획을 설명하자면 아

래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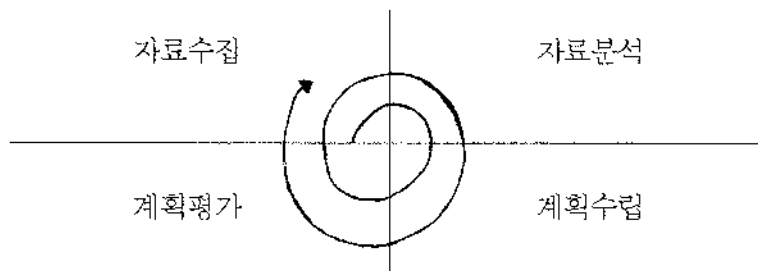
〈표 1〉



도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는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우도 계획은 북제주군 실시계획의 골격과 방향을 준수하며 1994~1997과 1998~2001 년으로 하는 계획으로 우도의 바람직한 발전형태와 발전순서를 수립한다.

우도계획은 기초적인 4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우도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자료와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얻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면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와 학생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얻어졌다. 또한 도, 군청직원과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의 의견도 수립하였다.

특별히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여러차례의 단체회의를 통하였고 그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해진 의견들에 중점을 두었다.



주민여론청취(우도면사무소에서)

이 수립과정은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그 보완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의 자료에 변화나 수정이 가하여질 때면 전체계획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마다의 자료점검이 필요하며, 계획의 재평가와 수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도계획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며, 과거로부터 어떠한 형태를 거쳐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가, 즉 우도가 지금 어느 지점에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도가 어느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세가 바람직한 것인가, 또 우도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는 의논·검토·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의논·검토·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로서의 「이상(비전)」은 무엇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합한 전략을 세우며, 필요한 모든 자원과 활동을 유도하여 바람된 실천을 꾀한다.

우도계획의 부록인 자료편은 우도계획이 설정한 각 방안을 채택하는 데 참고로

한 기본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제 2 절 계획수립의 원칙

우도계획 수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을 토대로 삼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위관련계획 준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 내지 극소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토이용계획을 가능한 한 준수한다.

또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상위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좀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따라 지역토지 내지 다른 자연자원을 좀더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상위 계획을 수정한다.

2. 지리적 집중체계의 성장

토지사용 특히 주거 등 도시화 사용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사회기반 시설 설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쉽다.

또한 지리적인 집중발전을 함으로써 우량 농경지와 보존지역을 보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현존하는 12개소의 자연마을 형태를 근거로 하여 좀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경제발전계획의 다양화

우도지역은 농업과 수산물 채취에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의 국제화로, 재래식 농경방식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다. 앞으로 농업이나 수산업이 경제적인 산업으로 지탱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농경지의 집단화와 기계화를 꾀하거나 적은 규모이

더라도 2차와 3차산업으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3차산업과의 연계나 확산은 제주도의 제1주요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도의 특산물」이라는 시장성을 고려하여 활발한 유통을 계획 실천한다.

4. 자연환경보존

해안선과 다른 자연환경의 보존, 특히 해안선침식,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존의 원칙을 준수한다.

5. 주민참여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각종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곧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제 3 절 지역환경현황

1.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북제주군 인구의 2%를 조금 넘게 차지하는 우도의 인구는 '92년 12월 현재 2,243명으로, 남자 46%, 여자 54%의 비례로 제주 전도의 49 : 51%의 비례에 비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 특징이다. 인구 밀도도 제주전도 밀도 km^2 당 272명과 북제주군의 142명에 비하여 371명이라는 높은 밀도이다.

우도의 인구는 근래에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여왔다. '91년과 '92년 사이에는 군 28%에 달하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군 전체의 8% 인구감소현상에 비하여 큰 감소 비율이다.

종합개발계획은 북군의 인구가 연간 0.81%의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우도 등 특히 작은 구성지역의 구체적인 인구추세와 인구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군의 연간 평균 감소 비례 0.81%를 적용하면 2001년의 우도 인구는 2,100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추세수란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통계학적으로 미래의 인구를 추정한 숫자를 말하며, 과거와 같은 여건들이 똑같이 계속하리라는 가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 자료가 많을수록 통계학적인 오차가 적으며, 우도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자료가 적을수록 그 오차는 커진다.

이 인구추세수는 인구목표수와는 다른 것이다. 목표인구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숫자이다. 즉 통계학적인 추세와 다른 모든 여건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숫자라고 결정을 짓고는, 모든 여건과 정책을 그 인구수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주는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 인구이다.

2) 경 제

총 가구수 621중, 농어가가 99%로 우도면의 대부분이 반농 반어의 경제적 생계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연간 생산액은 수산물이 18억3천5백만원이고, 농작물이 14억2천7백만원이다. 주요수산물은 천초, 어류, 감태이며 툿과 패류의 수확량도 비교적 높다.

주요 농작물은 보리, 땅콩, 고구마이다. 보리, 고구마는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여 왔으나, 땅콩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땅콩은 북제주군에서 우도에서만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6월에 시작된 도항선 대형화로 급증하는 관광객과 9개의 대중음식점 2개의 숙박업 그리고 빈박지정가구 5개를 밀받침으로, 우도팔경과 낚시 관광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이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가 필요하다.

수산물은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과, 주 농작물인 땅콩과 고구마를 간단히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분야

1) 환 경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끝에 위치한 제일 큰(6.05km) 섬이다.

성산항에서 천진항까지는 3.8km, 구좌읍 종달리에서 하우목동 포구까지는 2.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의 길이가 약 3.5km, 동서의 길이가 약 2.5km이다. 해발 132.5m인 남쪽 끝 소마리 오름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의 90%가 북쪽 끝 세배코지와 답다니탑 중간지역의 해발 4m로 시작하여 2.5%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우도의 중요한 환경요소는 물론 해안선 지역이다. 유일한 서빈백사는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이고, 그 이외의 해안선은 모두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간명월(晝間明月), 천진관산(天津觀山), 전포망도(前浦望島), 서빈백사(西濱白沙), 야항어범(夜航漁帆), 지두청사(地頭靑紗), 후해석벽(後海石壁), 동안경굴(東岸鯨窟)이라는 우도팔경도 해안선에서의 경관을 이룬다.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도 증가되어 우도해변이 오염되고 있다.

바나 평균수심 15m까지는 11개 어촌계의 관할인 공동어장으로 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992년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우도 전 해안선이 수자

원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지정도 없어졌다. 공동어장과 관련하여 수자원보전지역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앞으로 해상유람이나 해상 스포츠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야기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제일 큰 환경오염 문제는 해양수질 오염으로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활활동들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다.

해안가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매립과, 해안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하수정화처리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해안선의 11개 부락 등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며, 증가하는 화학비료의 사용도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토지사용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우도의 땅은 준도시지역 0.64km²(10%), 농림지역 0.11km²(2%), 준농림지역 5.02km²(83%), 자연환경보전지역 0.28km²(5%)으로 나뉘어진다. 실제로 경지면적(밭)은 4.13km²(72%), 임야가 0.92km²(15%)이고 나머지 0.82km²(13%)는 주택 등 기타지역으로 쓰이고 있다.

○ 토지 소유권은 약 96%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약 4%만이 군유지와 국유지이다.

○ 28,903㎡의 비양도는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북군의 토지 종별에 의하면 임야로 되어 있다. 비양도의 7%인 1,686㎡이 국유지이고 나머지 93%는 사유지로 18명의 소유주가 있다.

○ 중앙동 상가지역은 22,000㎡로 6개의 대중음식점, 5개의 소매상이 있고 농협과 수협사무실들이 있다. 838㎡의 공지는 사유재산이다.

3) 유 적

우도에는 4·3사건(1948) 당시 쌓여진 2개소의 망대가 있고 쌓아진 연대가 미상인 4개의 방사탑이 있다.

□ 현 황

구 분	명 칭	위 치
망 내	답 다 니 탑	전흘동 북쪽 바닷가
	비 양 동	비양동 동북쪽
방 사 탑	하 고 수 동 액 탑	하고수동 포구 양쪽에 1기씩 2기
	주 흥 동 방 사 탑	주흥동 포구 남북쪽에 1기씩 2기
	영 일 동 방 사 탑	영일동 포구 1기와 동남쪽 경작지에 1기
	동 천 진 동 방 사 탑	동천진동 포구 서쪽에 1기

3.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1) 교 통

3.8km 거리의 성산포항과 천진항은 1992년 6월에 신설된 57톤의 우일호로 연결이 된다. 여름철(4~9월)에는 매일 6회 왕복하고, 겨울철(10~3월)에는 매일 5회 왕복한다.

우일호는 인원 100명(선원 5, 승객 95)과 4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 배 시간에 맞추어 우도내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우도~성산간의 지역기후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운행이 정지됨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천진항 매표소 대합실은 약 69평의 건물로 연간 2,300명의 도민과 10,000명의 관광객의 입도를 원활히 다루기에는 적은 건물이다.

천진항 광장은 1,200㎡로 간혹 근처 주민들이 농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거나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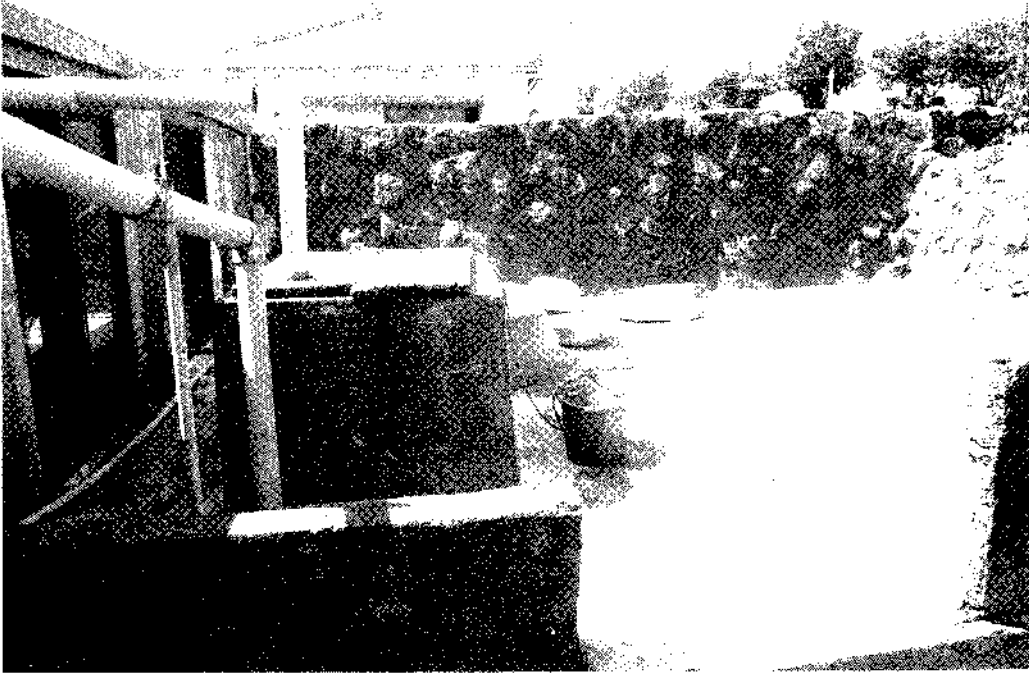
천진항에는 급유시설이 없어 급유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도내의 도로는 전체가 45.6km로 포장도로가 약 16.7km이고 비포장 도로가 약 28.9km이다.

2) 상 수

1991년의 확장된 저수지는 50,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1인당 일

일급수량 180ℓ를 기준으로 6개월간의 급수 저장량이다. 기존 지하수(2개공)에서 일일 740톤을 채수를 할 수 있으나 염분 농도가 기준치수인 150ppm을 훨씬 넘는 350~500ppm으로서 잡용수로 쓰고 있다.



각 가정마다 설치된 빗물 저장탱크

모자라는 상수를 보충하기 위해 각 가정에 불탱크가 있어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은 이중 수도관을 설치한다. 빗물의 수질검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3) 하수와 쓰레기

하수도 시설은 천진리의 경우 경찰지서에서 부두까지, 서광리 중앙동에서 오봉리 하고수동을 거쳐 주흥동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조일리는 하수도 시설이 없다. 즉, 전체 마을의 20%만이 시설이 되어 있으며, 하수도 시설이란 하수관이 묻혀 있는 것 뿐이고, 정화처리없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나머지 80%는 이러한 시설마저 없어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다.

기존 1,706㎡ 오봉리 전흘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가능량이 2,300M/T(일일 4톤)으로 1994년이면 다 차게 된다. 새로운 매립장 선정이 시급하다.

폐유수집장소는 동천진동, 하우목동, 주흥동, 전흘동, 하교수동, 비양동 등 6개소항에 있다. 제주시 수협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쓰레기매립장, 폐유수집 관리원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우도면사무소 및 제주시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4) 에 너 지

1983년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받고 있다. 거의 주민부담으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2012년까지(3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전기료에 공사대금 금액이 포함되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된다. (용자금 751백만원 가구당 월 5,000~7,000원 부담)

통신시설로는 1986년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전화분기국이 중앙동에 있으며 1992년 현재 571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있고, 총 13개의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팩시밀리 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망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4. 교육과 사회복지시설분야

1) 교 육

1993년말 현재 190명의 초등학교학생이 연평초등학교에 7개반에 편성되어 있다. 연평초등학교는 부지 16,378㎡에 교원숙소 7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아동 문고가 1,190권, 교사용 문고가 550권이 있다.

연평초등학교에는 1981년부터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93년 현재 19명의 원아가 등록되어 있다.

연평중학교에는 127명의 중학생이 3개 반에 편성되어 있다. 20,839㎡ 부지에는 교원숙소 4개가 있다. 체육관이나 식당·매점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2) 보 건

중앙동에 소재한 면사무소 구내에 보건지소가 있다.

1991년에 건립된 보건지소는 일반내과와 치과로 나누어져 2명의 일반내과 의사

와 1명의 치과의사, 간호사 1명, 위생사 1명이 파견되어 있다. 건물자체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부실하여 자주 막히는 등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의료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는 월 평균 2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구강진료를 하고 있으며 내과는 월평균 3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3) 스포츠 문화

스포츠 시설이라고는 따로 없고, 연평 초등학교에 철봉, 늑철, 구름사다리, 정글짐, 미끄럼틀, 유통목, 축구대, 배구대, 느림봉, 시이소가 있다.

연평중학교에는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탁구대 및 철봉, 평행봉, 씨름장이 있다.

문화시설은 따로 없다. 복지회관이 부지 1,420㎡에 건평 206평의 건물로 강당과 문고와 독서실이 있다. 또 각 동사무실에 문고가 있기도 하다.

4) 공 안

경찰지서는 천진동에, 유인 등대는 소머리오름에 무인 등대는 오봉리 독생곶과 비양동에 있다. 그 외에 우체국, 농협지소, 법인여촌제, 전화분기국, 한전출장소가 면사무소와 보건지소와 함께 중앙동에 위치한다.

묘지는 기존 묘지가 10,000㎡이고, 새로 선정된 곳이 15,755㎡로 소머리오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5) 주 택

1992년 현재 우도의 가구수는 621, 주택수는 618이고 폐가구수가 15동이다. 대부분의 주택들은 자연부락인 동네에 지어졌으나 근래에 이르러 여기저기 떨어진 곳에 지어진 주택들을 볼 수 있다. 이 주택들은 모두 전기·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또 빗물을 저장하는 물 탱크가 있다. 대부분의 집들이 기름 보일러를 쓰나 아직도 15%는 재래식 연탄을 쓰는 집도 있다. 주택의 11%가 수세식 변소를 사용한다. 나머지 89%는 재래식 오물 수거용 변소를 사용하며, 오물은 수거하여 본도로 이송한다.

제 4 절 주요 문제점과 발전의 기회

우도 주민들은 우도의 좋은 점이 독자적인 농사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생활터전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전원적인 환경이 좋으며,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인심이 좋은 것도 우도가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개의 해수욕장과 경관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자으로도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식수에 염분이 많아 주민 건강위협 초래 및 가전제품 등 수명이 짧음
- 동천진항 계속 공사로 인하여 해녀작업장 손실
- 노후선착장 계속공사는 실효성 없음
- 개발로 인한 해안절경 등 자연환경 피해가 많음
- 관광객의 급증으로 수용태세가 부족하고 각종 환경오염 증가
- 자동차에 의한 자연훼손 및 해양오염 증가
-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수익은 적음

그러기에, 주민들은 앞으로 정부당국이나 관계부처가 도와주어야 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식수문제의 우선 해결
- 우도 동쪽지역에도 어항시설 확충(현재는 천진항, 하우목동항 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 해산물 증산 방안 강구
- 바다목장화사업 보완·추진
- 해안도로 및 농로포장 추진
- 도로포장사업 시행시 하수도 시설 병행 실시
- 우도팔경 개발
- 농·어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 방안 마련
- 가공산업 유치 —— 농·수산물 활용
-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및 편리한 교통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량(우도~본도)가설 —— 민자유치

주민들은 이러한 바람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면 우도가 계속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제 5 절 계 획 안

1.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우도를 위한 정책이나 기반시설 계획상 장래 2001년의 목표인구를 2,100명으로 계획한다.

2) 경 제

(1) 연안자원의 서식증가를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을 계속 실시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ha)		866	60	100	100	100	506
사 업 비	계	2,601	180	300	300	300	1,521
	보 조(국비)	2,601	180	300	300	300	1,521
	용 자						
	자 담						

※ 어초시설 적지선정과 시설순위는 수산연구소와 어촌계 총회 결정에 따른다.

(2) 연안자원의 서식증가를 위하여 투석사업을 계속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계	'94	'95	'96	'97	'98~2001
사업량(ha)		40	4	5	5	5	21
사업비	계	600	60	75	75	75	315
	보조(국비)	420	42	52	53	52	221
	용자						
	자담	180	18	23	22	23	94

※ 투석사업 장소 순위는 어촌계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연안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민간사업으로 어패류 종묘 배양장 설치를 하도록 용자 지원한다.

단위 : 백만원

시설위치	규모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용자	자담	
우도면 서광리	1개소/ 1,000㎡	320		256	64	

(4) 연안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전복 종패 방류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계	'94	'95	'96	'97	'98~2001
사업량(천미)		790	40	100	100		450
사업비	계	158	8	20	20		90
	보조(국비)	79	4	10	10		45
	용자						
	자담	79	4	10	10		45

(5) 전복 양식사업의 계속 증가를 도모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개소)		25	2	3	3	3	14
사 업 비	계	250	20	30	30	30	140
	보 조						
	용 자	175	14	21	21	21	98
	자 담	75	6	9	9	9	42

(6) 소규모 어항개발의 일환으로 방파제 시설을 계속 추진한다.

사업장위치 \ 연도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347		43	89	109	106
하 고 수 동		"	66				66	
하 우 목 동		"	107		43	24		40
전 흘 동		"	101			35		66
주 흥 동		"	43				43	
영 일 동		"	30			30		
사 업 비	계	백만원	3,989		494	1,023	1,253	1,219
	보조(지방비)	"	3,989		494	1,023	1,253	1,219
	용 자	"						
	자 담	"						

(7) 소규모 어항개발의 일환으로 물양장시설을 계속 추진한다.

연도별 사업장위치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304	20				284
하 고 수 동		"	50					50
하 우 목 동		"	96					96
전 흘 동		"	58					58
주 흥 동		"	30					30
영 일 동		"	30					30
비 양 동		"	40	20				20
사 업 비	계	백만원	1,511	91				1,420
	보조(지방비)	"	1,511	91				1,420
	용 자	"						
	자 담	"						

(8) 어장(잠수) 진입로를 계속 정비한다.

연도별 어장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2,200	400	400	400	400	600
동 천 진 동		"	150			150		
서 천 진 동		"	200	200				
상 우 목 동		"	200		200			
하 우 목 동		"	150				150	
주 흥 동		"	200	200				
전 흘 동		"	200					200
삼 양 동		"	200		200			
상 고 수 동		"	200					200
하 고 수 동		"	200					200
비 양 동		"	250			250		

연도별 어장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영 일 동		m	250				250	
사 업 비	계	백만원	242	44	44	44	44	66
	보 조 (지방비)	"	220	40	40	40	40	60
	용 자	"						
	자 담	"	22	4	4	4	4	6

※ 지역별 우선 투자순위는 우도면에서 조정 가능함

(9) 노후어선 대체 및 소규모 선박 대형화를 지원 보조한다.

○ 노후어선 대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톤)		225	10	15	15	15	120
사 업 비	계	1,155	66	99	99	99	792
	보 조 (국비)	233	13	20	20	20	160
	용 자	689	39	59	59	59	473
	자 담	233	13	20	20	20	160

(10) 어선급유 시설 확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장 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국비)	용자	자담	
급 유 시 설	천 진 항	200드럼	10	5	3	2	'98년 이후

(11) 수산물 공동창고를 건립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건립장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지방비)	용자	자담	
계	200평	200	140	—	60	
천진리	100	100	70	—	20	
조일리	100	100	70	—	20	

(12) 68.7평의 현 천진항 대합실을 어민복지회관으로 수산물 직판장 시설을 포함하여 확장 건립한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용자	자담	
어민 복지회관	우도면천진리	150평	270	270	—	—	1995년

○ 수산물 직판장시설(어민복지 회관내에 시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용자	자담	
수산물 직판장	우도면천진리	40평	60	50	—	10	1998년

(13) 해녀 감소화, 노령화 현상을 보완하고 남성들의 취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스쿠버 다이빙 강습훈련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가능하면 우도에서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1회당 4~6일로 한다.

교육장소는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이며, 실지훈련은 우도 주변 공동어장 밖에서 행한다.

○ 스쿠버다이버 훈련 계획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5	1996	1997	1998~2001	비 고
우 도 면(계)	80	10	10	10	50	
천 진 리	22	3	3	3	13	
서 광 리	16	2	2	2	10	
오 봉 리	24	3	3	3	15	
조 일 리	18	2	2	2	12	

(14) 지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현대식 잠수 탈의장을 실시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장 위치	시설규모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국방비)	용 자	자 담	
계	105평	245	196		49	
천진리 서천진동	15	35	28		7	'94~'98
오봉리 주 흥 동	15	35	28		7	
" 전 흘 동	15	35	28		7	
" 삼 양 동	15	35	28		7	
" 하 고수동	15	35	28		7	
천진리 상우목동	15	35	28		7	
오봉리 상고수동	15	35	28		7	

※ 시설 우선순위는 어촌계 총회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15)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지원하여 전업 농·어가를 육성한다.

○ 농어민 후계자 육성계획

단위 : 명

구 분	사업비(용자)	계	'94	'95	'96	'97	'98~2001
우 도 면(계)	704	39	3	8	5	8	15
농민 후계자	360	20	—	5	2	5	8
어민 후계자	344	19	3	3	3	3	7

※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는 정착사업비 1,800만원씩 용자 지원한다.

(16) 주 작물인 땅콩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협업재배단지를 육성 지원한다.

○ 땅콩 협업재배단지 육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지명	사업량 (ha)	참여농가	사업비			비고
			계	용자	자담	
계	40	120농가	116	80	36	
천진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서광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오봉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조일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 사업장소는 참여농가에서 적정장소를 선정하며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다.

(17) 땅콩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가공, 직접 상품화를 추진한다.

○ 땅콩 가공시설 지원 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분 마을별	시설규모	시설장소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용자	자담	
계	80평		120	60	20	40	
천진리	20평	천진리	30	15	5	10	
서광리	20평	서광리	30	15	5	10	
오봉리	20평	오봉리	30	15	5	10	
조일리	20평	조일리	30	15	5	10	

○ 시설규모는 마을 단위로 가내공업 형식으로 시설한다.

○ 시설장소는 마을별로 주민총회 결의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다.

○ 연차별로 시설비를 지원한다.

(18) 백합구근과 선인장의 실험재배를 계속 추진하고 상업화한다.

○ 도매

○ 소매 —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실험재배를 추진하고 농가소득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농가에 보급 확대 재배토록 한다.

(19) 고구마 품종을 바꾸기 위한 실험 재배를 계속 지원하고 고구마를 재료로 쓰는 식품 만들기를 장려한다.

○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만들기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고구마 품종을 개량한다.

(20) 도민들이 여러 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제주도공무원교육원 사회산업 연수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장소는 가급적이면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로 한다.

(21) 민박 운영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만이 민박운영을 하도록 한다.

(22) 「팔정의 우도」와 「낙시관광의 우도」를 관광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며 홍보에 주력한다.

○ 우도 8경(牛島八景)

- 주간명월(晝間明月)
- 야항어범(夜航漁帆)
- 천진관산(天津觀山)
- 지두청사(地頭靑紗)
- 전포망도(前浦望島)
- 후해석벽(後海石壁)
- 동안경굴(東岸鯨窟)
- 서빈백사(西濱白沙)

○ 낙시터 개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지방비)	용 자	자 담	
우 도 면 (계)	4개소	348	104	90	154	
천진리 서천진동	1	87	26	22.5	38.5	
서광리 하우목동	1	87	26	22.5	38.5	
오봉리 전 홀 동	1	87	26	22.5	38.5	
조일리 영 일 동	1	87	26	22.5	38.5	

※ 낙시터에는 간이주차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한다.

2. 자연환경분야

1) 환 경

(1) 종합개발계획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산호사 해안변(서빈백사)의 보존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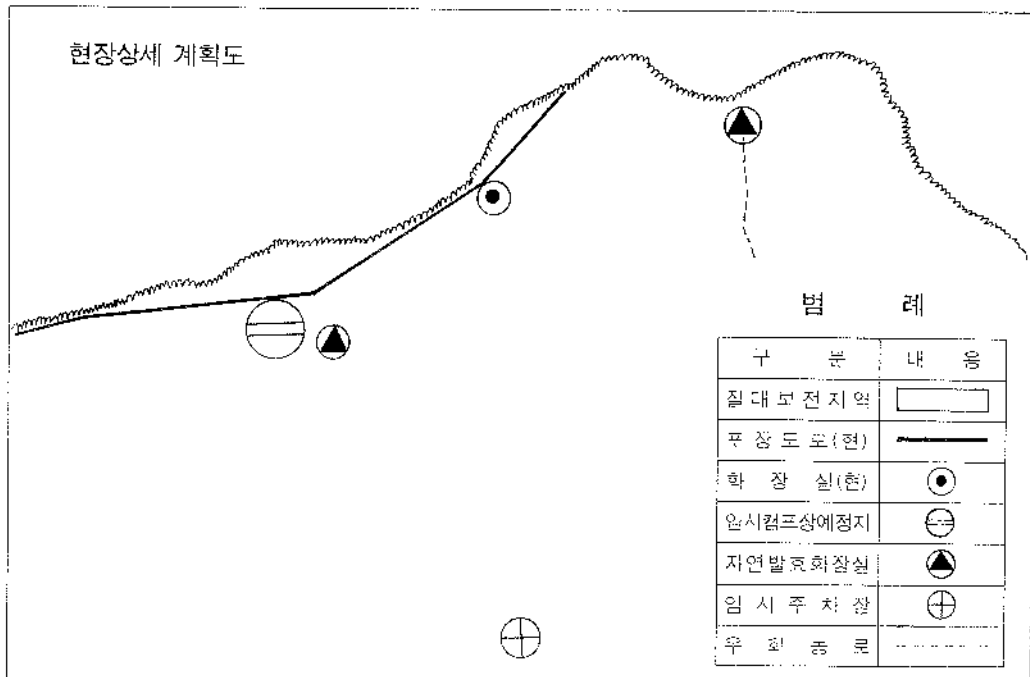
○ 해산물 운송을 위한 경운기와 화장실 관리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통제한다. (경운기는 마을에서 이르는 길에 국한한다.)

○ 인접한 경작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우회 농로를 신규 개설 포장한다.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설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국 비)	자 담	
농로개설 및 포장	우도면 천진리	L=500m B= 4m	80	72	8	'98 이후



-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 모래 언덕에서의 캠핑을 허용치 않으며, 인접 경작지(또는 야초지)에 임시 시설 캠프장을 허락한다.

○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진항에서 shuttle bus를 운영하며 (7.8월 성수기) 인접한 경작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산호사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광포(넓미역) 채취를 재개한다.

(2) 종합개발계획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고수동 백사장을 정비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한다.

- 백사장 석축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94	'95	'96	'97	'98~2001
사업량 (m)		200	100				100
사업비	계	30	15				15
	보조(지방비)	30	15				15
	융자						

- 모래바람으로 인한 인근 가옥에의 피해를 감소하며 해안의 자연훼손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따라가며 나무심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해송, 돈나무 등 해풍에 강하고 향토색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 인접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허용한다.

2) 토지이용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양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방법을 강구한다.

(2) 비양도를 청소년 스포츠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 발효식 화장실, 상수도과 공중전화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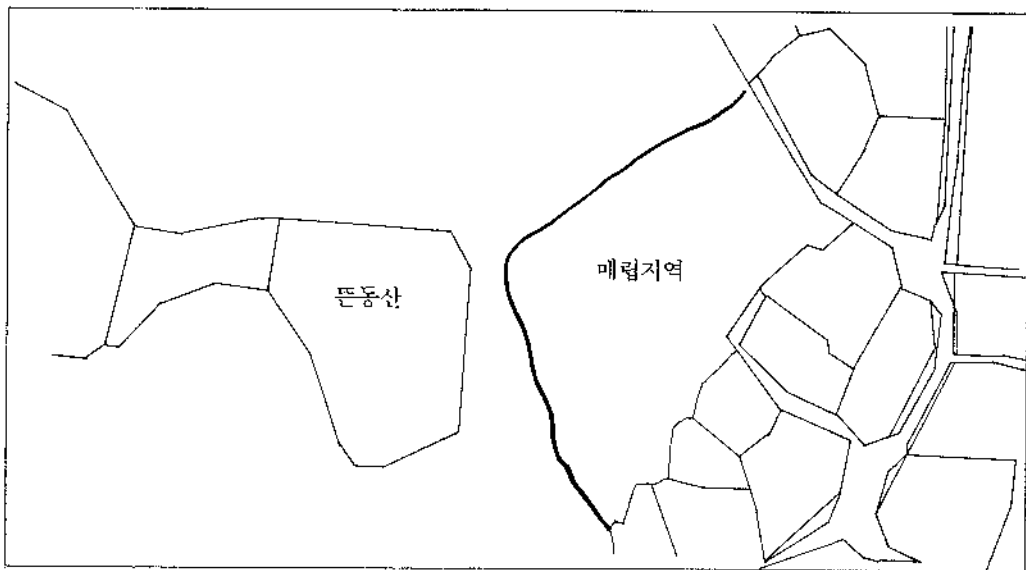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진항 동쪽 언

덕지역과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규 공동묘지 지역에 식수사업을 계속 전개한다.

○ 수종은 해충에 강하고 향토에 맞는 수종(예 : 구름비나무, 해송, 털머위, 돈나무 등)을 선택한다.

(4) 전홀동과 주홀동사이 뜰동산 밑에 매립되고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도록 녹지공간으로 보존한다.

○ 현장 상세 계획도



(5) 신규건축허가(신고)시에는 기존의 마을과 마을 사이(취락지역내)를 매꾸는 형태를 권장하고, 취락지와 떨어진 지역내에는 개별허가(신고) 또는 시설을 억제한다. 취락지역내에서도 하수처리 시설과 상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허가토록 한다.

(6) 도 전역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수동·우도봉·해안변을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양병방통 부근에 묘목장을 설치하며 양병방통을 보수하여 물 공급지로 운영하고 묘목은 해수와 바람에 강한 수종(구름비 나무,

털머위, 해송 등)을 선택한다.



양벙방통과 주변. 이곳에 묘목장을 설치. 양벙방통을 보수 물공급지로 운영해야 한다.

(7) 유적보호관리

- 2개소의 망대와 4개소의 방사탑은 각마을 어촌제가 보호 관리토록 한다.
- 방문객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1) 교 통

- (1) 비포장 도로를 연차적으로 포장한다.
- 서빈백사 절대보전지역은 제외한다.

○ 포장계획(해안도로 및 농로)

노선별	연도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계	m	10,500	2,700	1,500	1,500	1,500	3,300
	주흥동~하우목동	"	1,000	600	—	200	200	—
	하고수동~전흥동	"	2,000	500	300	300	300	600
	비양동~영일동	"	2,600	750	300	300	—	1,250
	동천진동~하우목동	"	1,200	300	200	200	300	200
	상우목동~하우목동	"	800	350	200	—	250	—
	선천진동~해안	"	400	200	—	—	200	—
	천진리~저수지	"	1,600	—	300	300	—	950
	서광리~오봉리	"	900	—	200	200	250	250
사업비	계		1,050	270	150	150	150	330
	보조(국비)	"	1,050	270	150	150	150	330
	용자	"	—	—	—	—	—	—
	자담	"	—	—	—	—	—	—

※ 지역별 우선 부지순위는 우도면에서 조정 가능함

(2) 서빈백사 진입로변에(천진동, 하우목동, 상우목동, 기타방향에서 내려오는 도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도로를 개설 포장한다.

(3) 서빈백사 주변 진입지역에 사설 주차장 시설을 허용한다.

(4) 공공시설은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5) 중앙동 상가지역에 현존하는 공지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으로 포장 조정한다.

○ 중앙동 광장(포장 안된 곳) 현황

위 차	소 유 자	지 목	지 적	비 고
연평리 1404-1	천진리 1605-2, 윤달선	전	838㎡	1988이후

- (6) 천진항 부두에 승객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
- (7) 본도와 연결되는 교량시설을 추진한다.
- (8) 소규모 어항인 서천진동항을 개발하여 산업항겸 대피항은 물론 우도~종달간, 우도~성산간 항로로 활용토록 한다.
- (9) 도 전역에 적정 규격의 도로 표지판을 세운다.
- (10) 순환버스 시간을 검토 조정한다.
- (11) 해안변을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여 섬 전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다.
- (12) 흑사포(동안경굴) 돌간이 해안에 물양장 및 선가장을 시설 낚시 관광선 접안 및 조업의 편의를 도모케 한다.
- (13) 천진항을 확장 정비한다.
- 공동주차장을 포장, 조경한다.

위 치	규 모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지방비)	용 자	자 담	
공동주차장 포장및조경	우도면 연평리 1737-9	포장 1,200㎡ 조경 1식	80	72	—	8	

○ 천진항 확장 정비사업 계획

구분 \ 연도별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방파제 축조	m	50					50
방파제 보강	m	68					68
물 양 장	m	80	40				80
호 안	m	25					25

구분 \ 연도별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준 설	m	8,049			4,049		4,000
기 타	식	1 식					1 식
사 업 비	계	2,317	220		556		1,541
	보 조 (국 비) (지방비)	2,313 (2,279) (110)	220 (209) (11)		556 (528) (28)		1,541 (1,470) (71)
	용 자						
	자 담						

2) 상 수

(1) 부족한 식수문제를 해결한다.

-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종달~우도간 해저관로를 개설한다.

(2) 봉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분기 1회 실시(북제주군 보건소 의뢰)

3) 하수와 쓰레기 처리

(1) 미비된 하수관 시설을 확충한다.

- 하수도 시설계획

어장별 \ 연도별	사 업 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계	m	4,800	200	600	600	600	2,800
동 천 진 동	"	800			200	200	400
서 천 진 동	"	800		200	200		400
중 양 동	"	500				200	300
상 우 목 동	"	300	200				100

연도별 어장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하 우 목 동		m	200				100	100
주 흥 동		"	200				100	100
삼 양 동		"	500		200			300
전 흘 동		"	300					300
비 양 동		"	400					400
영 일 동		"	800		200	200		400
사 업 비	계	백만원	480	20	60	60	60	280
	보 조 (국 비)	"	480	20	60	60	60	280
	용 자	"						
	자 담	"						

(2) 하수처리는 마을단위로 집단처리 시설을 한다.

- 집단처리장은 만조선에서 적어도 100m이상 내륙장소에 설치한다.
- 시설후보 예정지 및 시설계획

연도별 시설예정지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계		m ²	4,000					4,000
천 진 리		"	1,000					1,000
서 광 리		"	1,000					1,000
오 봉 리		"	1,000					1,000
조 일 리		"	1,000					1,000

연도별 시설예정지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 2001
사 업 비	계	백만원	1,200					1,200
	보조(국비)	"	1,200					1,200
	용 자	"						
	자 담	"						

(3) 쓰레기 수거·매립장관리 관계요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한다.

(5)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품들을 특별수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수거한다.

(6) 제2의 쓰레기 매립 후보장소 선정

○ 쓰레기 매립장은 지하수, 지질, 해수의 오염방지에 최적의 방안을 채택 관리한다.

○ 제2 쓰레기 매립장 후보 예정지

위 치	지 목	지적(㎡)	소 유 자	매립 가능량
연평리 730 주변	잡	1,500	국	10,000M/T

※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우도면 주민의 총의에 의한 변경이 가능함

(7) 해안가 폐유수집장소에 대한 관리와 시설을 보강한다.

4) 에 너 지

(1) 증가하는 전기 수요 추세에 맞는 공급량 확보한다.

(2) 교육시설에 필요한 전압 확충을 우선적으로 한다.

(3) 해저 전기시설 당시(1987) 차입한 융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분야

1) 교 육

- (1) 연평초등학교에 skate board, roller skating rink를 설치
- (2) 연평초등학교에 다목적 오락실 설치
 - 기존의 교실활용을 우선으로 한다.
- (3) 연평초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도서관고 확충
- (4) 연평중학교 교실을 방과후에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등시설 확충 및 형광등 소리 제거
- (5) 연평중학교에 체육관 시설
 - 연평중학교 테니스장 설치
- (6) 연평중학교 학용품과 간식을 파는 매점 운영
- (7) 연평중학교에 정기적으로 도서관고 확충
- (8) 제주시 서점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책 우편주문제 방안 마련
- (9) 이동문고 제도를 강화하여 우도를 비롯한 여러 고립된 지역을 순회한다.
- (10) 제주 본도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주시 인근에 마련한다. (민자 유치 및 융자지원 등)

2) 보건의료

- (1) 보건지소 치과실에 새 compressor 구입
- (2)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구강진단과 치료를 겨울방학(2월)에 실시하여 완전치료 할 수 있도록 한다.
- (3) 내과에 필요한 혈액검사 장비 및 X-Ray 촬영기를 배치한다.

3) 스포츠와 문화

- (1) 본도에서 사범을 초청하여 무술반(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을 적어도 초등학교 1~3학년, 4~6학년, 중학교 1~3학년 등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장소는 연평중학교에 체육관이 시설될 때까지는 사회복지회관 강당을 개조 사용한다. (현재의 시멘트 바닥에 나무 마루를 깔거나, mattress를 확보한다.)

(2) 비양도를 청소년들의 스포츠 공원으로 활용한다.

－ 잔디위에 널려 있는 돌들을 치우고 필요한 수도시설,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공중전화 설치

(3) 도내에 이동 예술관을 설치하여 적어도 1년에 두번씩 우도를 포함한 여러 고립된 지역을 순회한다.

(4) 동화작가나 시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우도에서 작품, 시 읽기 밤을 개최토록 권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한다. (장소는 각 학교나 복지회관)

(5) 어른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분기 1회 연평중학교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공 안(公安)

(1) 소방차를 구입 배치한다. (장기적으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한다.)

○ 소방·파출소 설치 계획

위 치	규 모	인 원	장 비	비 고
연평리 1451-3번지	50평	5명	소방차 1대	1988 이후

※ 우도면 사무소내에 설치한다.

5) 주 택

(1) 폐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폐가는 허물도록 한다.

(2) 민박업소의 방수가 새개이상인 집은 주인식구들이 쓰는 화장실, 욕실과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 욕실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융자금 알선 등)을 한다.

(3) 민박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한다.

－ 연 2회 － 군

－ 분기 1회 － 우도면



민박 가옥 전경. 이의 본격적인 개발은 관광소득을 우도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일환책이기도 하다.

5. 정부분야

우도계획을 실시하는 주체는 북제주군이다. 대부분의 계획자체가 북군의 자체 예산이나 중앙정부 또는 민간협약체의 보조로 실행을 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 다. 그리고 적은 부분만이 민간이 실행하게 된다.

(1) 북군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수한다.

(2) 민간이 계획의 일부를 이행할 때에는 모든 허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조속한 계획 이행을 도모한다.

(3) 북군의 예산책정에 이 계획들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조속한 실행을 도모한다.

(4)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시행될 부동산세제가 이러한 계획 실행과 병행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5) 우도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이 계획의 실행을 점검하고, 또 계획수정에도 참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6.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업량 단 위	총 사업비	'94	'95	'96	'97	'98~ 2001
총 합 계			18,836	1,083	2,117	3,114	2,666	9,856
□ 사회경제분야			13,199	558	1,707	2,348	2,356	6,230
1. 인공어초시설	866	ha	2,601	180	300	300	300	1,521
2. 투석사업	40	ha	600	60	75	75	75	315
3. 어패류종묘배양	1	개소	250	20	30	30	30	140
4. 전복종패방류	790	천미	158	8	20	20	20	90
5. 전복양식	1	개소	320	—	—	320	—	—
6. 방파제 시설	541	m	3,989	—	494	1,023	1,253	1,219
7. 물양장 시설	304	m	1,511	91	—	—	—	1,420
8. 어장진입로 정비	2,200	m	242	44	44	44	44	66
9. 노후어선 현대화	225	톤	1,155	66	99	99	99	792
10. 어선급유시설	200	드럼	10	—	—	—	—	10
11. 수산물 공동창고	2/200	동/평	200	—	—	100	100	—
12. 천진항 대합실 건립	1/150	동/평	270	—	270	—	—	—
· 수산물 직판장	식	1	60	—	—	—	—	60
13. 스쿠버다이버 훈련	80	명	—	—	—	—	—	—
14. 잠수탈의장시설	7	개소	245	35	35	35	70	70
15. 농어민후계자	39	명	784	54	144	81	144	281
16. 땅콩협업단지	4	개소	116	—	29	29	29	29
17. 땅콩 가공시설	80	평	120	—	30	30	30	30
18. 백합, 선인장 재배	—	—	—	—	—	—	—	—
19. 고구마 품종갱신	—	—	—	—	—	—	—	—
20. 산업정보 습득	—	—	—	—	—	—	—	100
21. 민박 운영	60	동	300	—	50	75	75	87
22. 낚시터 개발	4	개소	348	—	87	87	87	—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업량 단 위	총 사업비	'94	'95	'96	'97	'98~ 2001
□ 자연환경분야			210	15	—	—	100	95
1. 산호사 해안보존			180	15	—	—	100	80
· 우회농로개설	500	m	80	—	—	—	—	80
· 광포 건조시설	1/50	동/평	100	—	—	—	100	—
2. 백사장 석축	200	m	30	15	—	—	—	15
□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5,427	510	410	766	210	3,531
○ 교 통			3,447	490	150	706	150	1,951
1. 비포장도로 포장	10,500	m	1,050	270	150	150	150	330
2. 천진항 확장정비								
· 공동주차장 포장	1,200	m ²	80	—	—	—	—	80
· 천진항 확장	1	식	2,317	220	—	556	—	1,541
○ 하수와 쓰레기처리			1,680	20	260	60	60	1,480
1. 하수관시설	4,800	m	480	20	60	60	60	280
2. 하수처리시설	4/4,000	개소/m ²	1,200	—	—	—	—	1,200
3. 쓰레기 매립장시설	1,500	m ²	200	—	200	—	—	—
○ 공 안			100	—	—	—	—	100
1. 소방관 파출소	1	개소	100	—	—	—	—	100

자 료 편

사회경제분야

1. 인 구(1988~1993)	524
2. 인구 증가 전망	525
3. 입도 관광객 현황	525
4. 수산물 생산량	526
5. 공동어장 현황	526
6. 어선세력 현황	528
7. 해녀 증감 전망	528
8. 잠수 탈의장 시설 현황	528
9. 농어민후계자 현황	528
10. 농업가구 및 인구	529
11. 주요작물 생산량	529
12. 땅콩 생산량 전망	529
13. 농산물 보관창고 현황	530
14. 화학비료 사용량	530
15. 업소현황	530
16. 민박지정현황 및 수요 전망	530

자연환경분야

1. 보전지역 현황	531
2. 토지 종별 현황	531
3. 국토이용 관리 현황	531
4. 비양도 현황	534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1. 도로현황	535
2. 천진항 현황	535
3. 상수원(저수지) 현황	537
4. 지하수 개발현황	537
5. 장래 용수수요 추정	537
6. 쓰레기 매립장 현황	538
7. 폐유수집장소 현황	538

교육·사회복지시설 분야

1. 초등학교 학생현황(1993)	539
2. 중학교 학생현황(1993)	539
3. 폐가구 현황	539
4. 만박 자정 기준	540

우도계획의 부록인 이 자료편은 우도계획 성립의 배후자료를 한데 묶은 것이다. 우도면의 정치단위 변천상, 역사적 통계자료는 부족하여 현황(1992년이나 1993년)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첫편에는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사회경제분야

인구와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한다. 역사적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20년 후의 추세를 알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도면의 정치단위 변천상 역사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종합계획에서 우도라는 작은 지역의 통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인구추세나 경제활동도 세부분석(micro-analysis)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제주군 기획실에서 준비한 개괄적인 추세를 인용하였다.

자연환경분야

환경과 토지사용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환경과 토지사용에 필요한 기본시설들 즉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 주차장, 방파제, 항만 등에 관한 자료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하수 시설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물적시설에 중점을 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비교할 때 교육과 사회복지시설은 물적인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에 관한 역사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술하는데 주력하였다.

정 부

우도계획을 실시하는 주체는 북제주군임으로 북군 기관 중 계획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특별한 정책이나 조례등과 또 계획사항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자료편의 두번째 편에는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기록하여 실었다.

도민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우도의 좋은 점들이 무엇인가,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앞으로 우도가 해결해야 할 점들 즉 계획하는 점들이 무엇인가를 서술하였으며 가능한 그 순위까지도 결정을 하였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번째 회의는 1993. 8. 19 ~ 21일까지 각 리마다 있었고, 두번째 회의는 10. 22일에 있었으며 가장 바쁜 수확시기임을 감안하여 각 동장, 이장 그리고 농협 등 단체장들과 함께 만난 전체 회의였다. (참가자 명단을 첨부하였다.)

현 황 자 료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단위 : 명, 가구

구 분		인 구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87	군 전 체	112,928	54,273	58,655	27,128	
	우 도 면	3,254	1,532	1,722	669	
	천 진 리	735	332	403	146	
	서 광 리	662	328	334	153	
	오 봉 리	1,072	493	579	219	
	조 일 리	785	379	406	151	
'88	군 전 체	112,725	54,253	58,472	27,183	
	우 도 면	3,224	1,491	1,733	666	

구 분		인 구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88	천 진 리	728	324	404	147	
	서 광 리	654	318	336	151	
	오 봉 리	1,068	481	587	216	
	조 일 리	774	368	406	152	
'89	군 전 체	112,842	54,272	58,570	27,220	
	우 도 면	3,210	1,495	1,715	663	
	천 진 리	732	345	387	153	
	서 광 리	638	311	327	151	
	오 봉 리	1,071	485	586	217	
	조 일 리	769	354	415	142	
'90	군 전 체	108,805	53,370	55,435	26,784	
	우 도 면	3,108	1,503	1,605	660	

- 조사시 마을별인구 미조사 -

2. 인구 증가 전망

단위 : 명

구 분 \ 년 도	1990년	1997년	2001년	비 고
북 제 주 군	108,805	104,000	100,000	
우도면(계)	3,108	2,380	2,100	

※ 자료 : 북제주군 기획실

3. 입도 관광객 현황

년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민 원	2,500	3,000	4,000	6,000	10,000	13,000

※ 자료 : 북제주군 우도면

- 1992년 6월 도항선 대형화 시작되었음

4. 수산물 생산량

구 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갑 태	60 (60)	214 (214)	365 (365)	125 (125)	305 (305)	47 (47)	123 (123)	—	70 (70)	194 (194)
툰	103 (101)	132 (131)	131 (129)	114 (112)	86 (84)	92 (90)	76 (74)	52 (50)	60 (58)	43 (42)
천 초	373 (373)	356 (356)	323 (323)	372 (372)	350 (350)	379 (379)	344 (344)	408 (408)	379 (379)	309 (309)
패 류	80 (70)	81 (71)	40 (31)	29 (17)	28 (14)	30 (18)	34 (22)	36 (24)	40 (31)	31 (23)
어 류	284 (4)	269	354	340 (205)	328 (117)	312 (13)	294 (16)	282 (20)	269 (12)	265 (246)
기 타	169 (22)	173 (27)	210 (85)	201 (78)	181 (26)	198 (50)	210 (81)	229 (170)	198 (71)	232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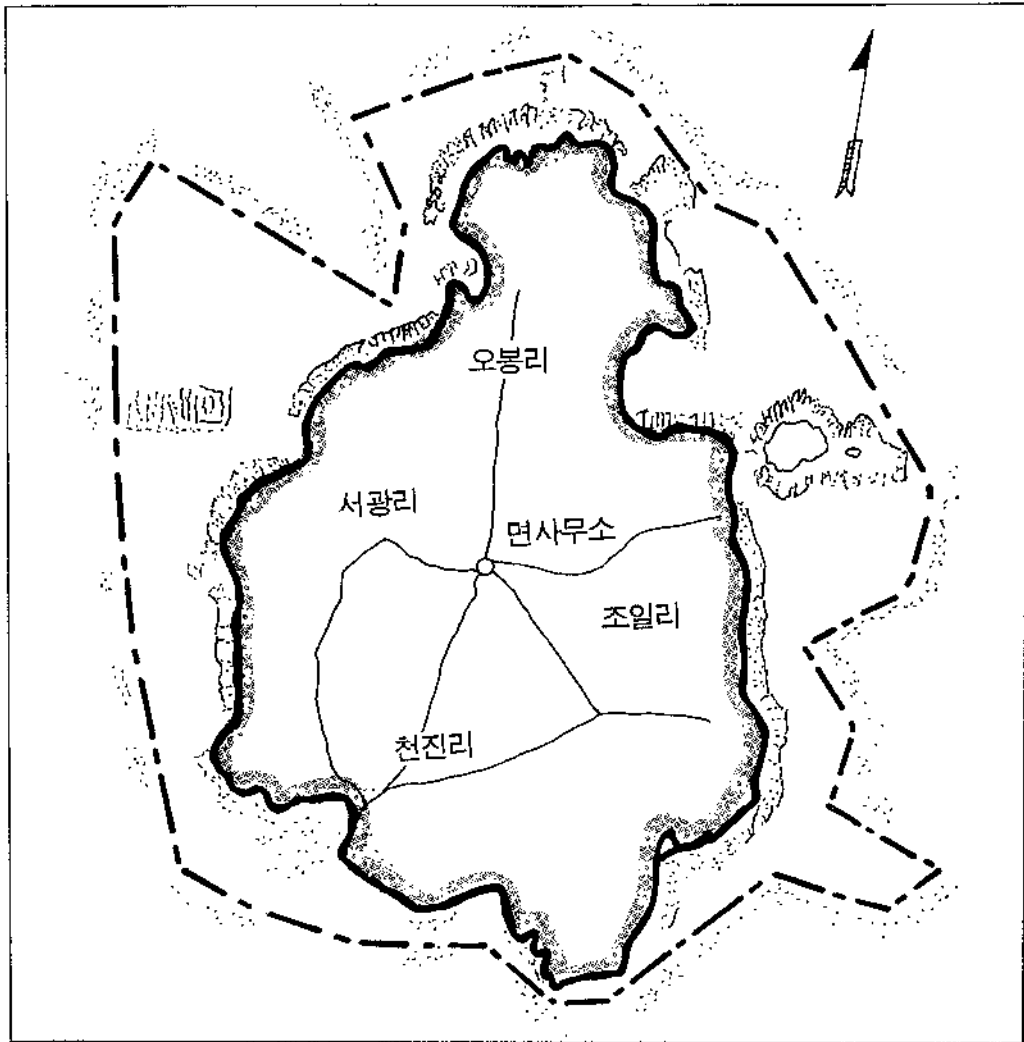
※ ()은 위탁판매 수량임.

5. 공동어장 현황

어 업 의 류	어 구 의 칭	수 면 의 치	어 장 면 적	수 면 의 구 역
제 1 종 공 동 어 장	나 잠 도 수	연 평 지 선	6,271,000㎡	· 우도 북단 돌각 · 우도 남단 돌각 · 동천진항 남측 돌출부 · 동천진항 서측 돌출부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 공동어장 도



※ 공동어장내에서

- 가. 할 수 있는 행위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패류, 해조류 또는 문어, 낙지, 성게, 게, 갯지렁이, 해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나. 할 수 없는 행위 : 어선어업중 자망, 문어단지 등은 공동어장내에서 조업 제한

6.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1톤 미만	1~5 톤	5~10 톤	10~20 톤	20~30 톤	30~50 톤	50톤 이상
북 제 군	878	61	557	176	22	20	40	2
우도면	47	-	38	8	1	-	-	-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1992)

7. 해녀 증감 전망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1992년	1997년	2001년	증 감 (1992~2000)
우도면(계)	392	370	350	△ 9

8. 잠수 탈의장시설 현황

구 분 마을 별	시 설 규 모	시 설 년 도	비 고
계	60평		
천진리 동천진동	15	'93	
서광리 하우목동	15	'86	
조일리 비양동	15	'86	
조일리 영일동	15	'93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1993)

9. 농어민 후계자 현황('93년도)

단위 : 명

구 분	계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비 고
북 제 주 군	479	302	177	
우 도 면	25	11	14	

※ 자료 : 북제주군 산업과, 수산과

10. 농업가구 및 인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농업가구(호)	172	170	168	147	142
농업인구(명)	813	708	707	569	518
종사원수(명)	321	315	314	271	262

※ 자료 : 북제주군 우도면

11. 주요작물 생산량

단위 : ha/M/P

연도별	작물별	대 맥 (보리)		낙화생 (땅콩)		고 구 마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조 곡	정 곡
'88	군전체	4,400	12,319	-	-	2,346	52,748	16,352
	우도면	212	594	-	-	330	7,419	2,300
'89	군전체	4,939	14,323	-	-	2,320	55,680	17,261
	우도면	212	165	-	-	352	8,448	2,619
'90	군전체	5,446	15,412	83	135	2,443	56,921	17,644
	우도면	283	801	20	135	330	7,788	2,416
'91	군전체	5,933	16,800	105	146	2,171	50,090	15,528
	우도면	307	870	53	140	270	6,231	1,931
'92	군전체	5,615	19,653	112	85	2,127	47,488	14,720
	우도면	270	945	102	85	286	6,384	1,979

12. 땅콩 생산량 전망

단위 : ha/M/T

구분	연도	1992년		1993년		2000년		비 고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북 제 주 군		112	95	140	119	150	127	
우 도 면		102	85	125	106	140	119	
비 율 (%)		91	89	89	89	93	94	

※ 자료 : 북제주군 산업과

13. 농산물 보관창고(비료창고 포함) 현황

소재지	규모		소유자	건축 년도	운영 주체	용도	보관 능력 (톤)	주요보관 작물또는 비료
	동수	건평						
계	4	224평					1,007	
연평리 2395	1	29	구좌 농협	66	구좌 농협	창고	70	맥주 맥콩
" 1447	1	55	"	84	"	"	247	"
" 1447-3	1	70	"	87	"	"	315	비료
" 610-8	1	70	"	76	"	"	315	맥주 맥콩

14. 화학비료 사용량

단위 : 성분 M/T

연도별 비종별	'87	'88	'89	'90	'91	'92
계	241.8	282.6	307.5	329.4	271.5	241.8
질소	73.7	88.7	98.9	104.5	86.3	79.2
인산	71	80.4	90.3	97.9	75	83.3
加里	97.1	113.5	118.3	127	110.2	102.3

※ 우도내에 반입된 화학비료량(농협) 통계

15.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중음식점	간이주점	숙박업	다방	비고
우도면	9		2	1	8

※ 자료 : 북제주군 사회과

16. 민박 지정 현황 및 수요전망

단위 : 가구

연도별 구분	1992년	1997년	2001년	비고
우도면	5	25	60	

※ 자료 :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자연환경분야

1.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

단위 : km

지 역 명	소 재 지	면 적	비 고
우도 산호사해안변	· 우도면 천지동 - 하우목동해안	0.096	절대보전지역
우도 소머리해안	· 우도면 연평리	0.481	"
우 도 면	· 해안가 일대	1.01	상대보전지역

-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도
“별첨”

2. 토지종별 현황

단위 : km

구 분 \ 지목별	계	전	임 야	대 지	기 타
우 도 면	6.05	4.13	0.92	0.32	0.50
비 율(%)	100	72	15	5	8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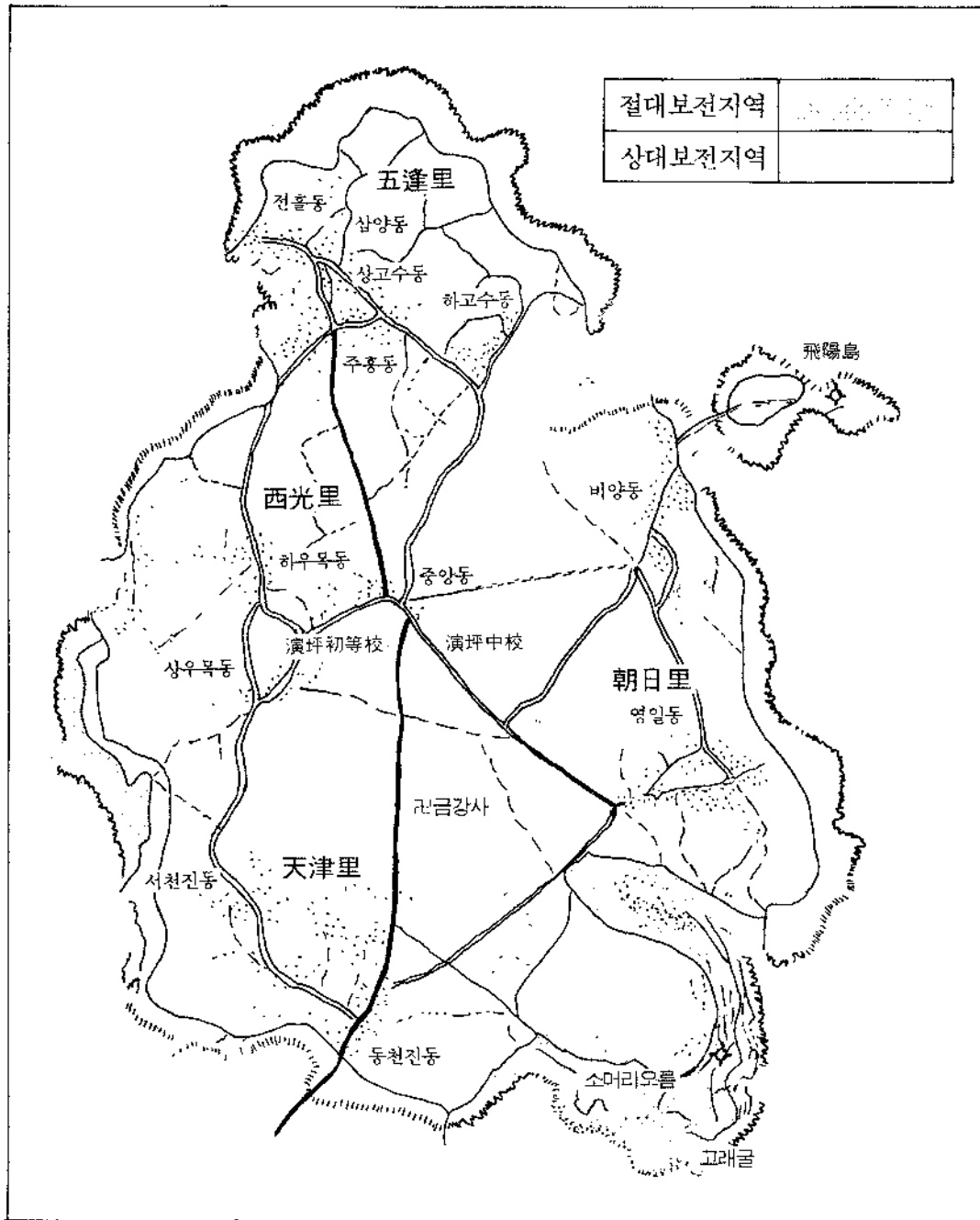
3. 국토이용관리 현황

단위 :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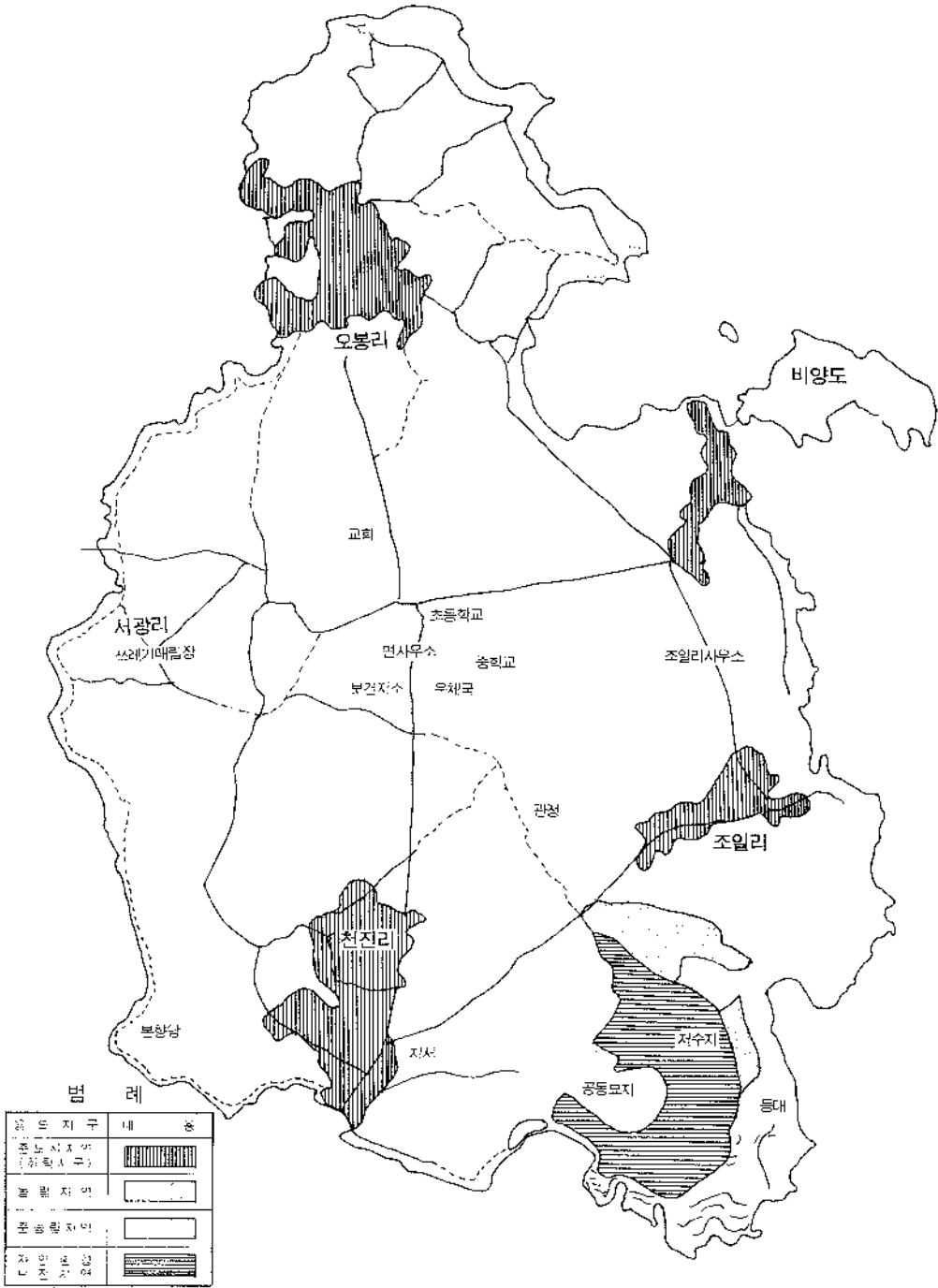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 전 지 역
6.05	-	0.64	0.11	5.02	0.28

- 국토이용 계획도
“별첨”

○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도



牛島面國土利用計劃圖



4. 비양도 현황

가. 토 지

단위 : m^2

계	전	임 야	대	도 로	기 타
28,903	-	27,217	-	1,686	-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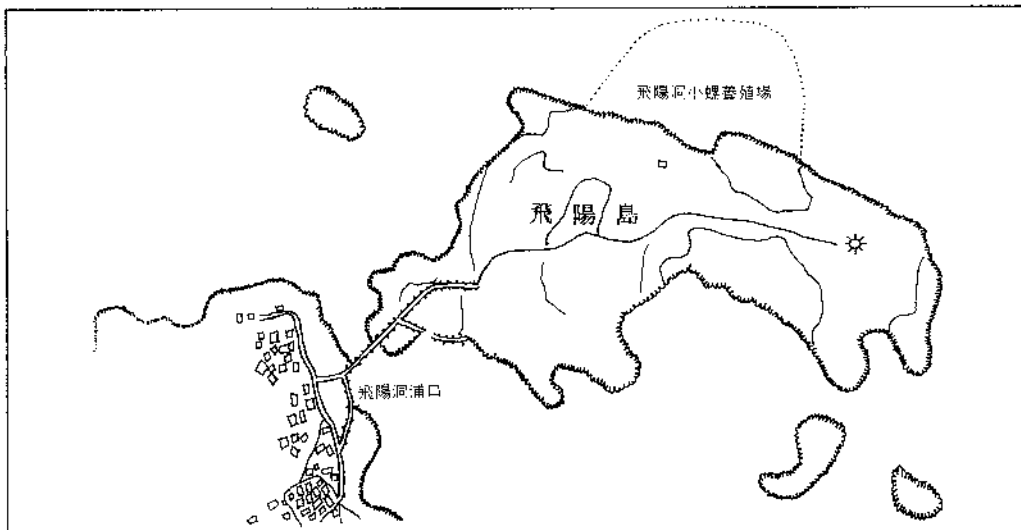
나. 토지소유현황

단위 : 명/ m^2

계	도 내 인		도 외 인	공 공 기 관 (국·건설부)
	우 도 면	기 타		
19/ 28,903	6/ 9,759	4/ 4,308	8/ 13,150	1/ 1,686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

○ 현 황 도



사회간접 자본시설

1. 도로현황

구 분	계		포 장		비 포 장	
	연장(km)	폭(m)	연장(km)	폭(m)	연장(km)	폭(m)
계	45.6	3 ~ 4	16.7	3 ~ 4	28.9	3 ~ 4
군 도	5.7	4	5.7	4	-	-
면 도	6.0	4	5.0	4	1.0	4
리 도	9.2	3 ~ 4	1.0	4	8.2	3
농 로	7.5	3	0.9	3	6.6	3
기 타	17.2	3	4.1	3	13.1	3

○ 도로망 현황도

“별첨”

2. 천진항 현황

가. 일반현황

항 종	관 리 청	지 정 년 월 일	항 내 수 면 적	교 통			비 고
				성 산	세 화	김 녕	
2종항	제 주 도	'72.3.13	34,600㎡	3.5km	9km	1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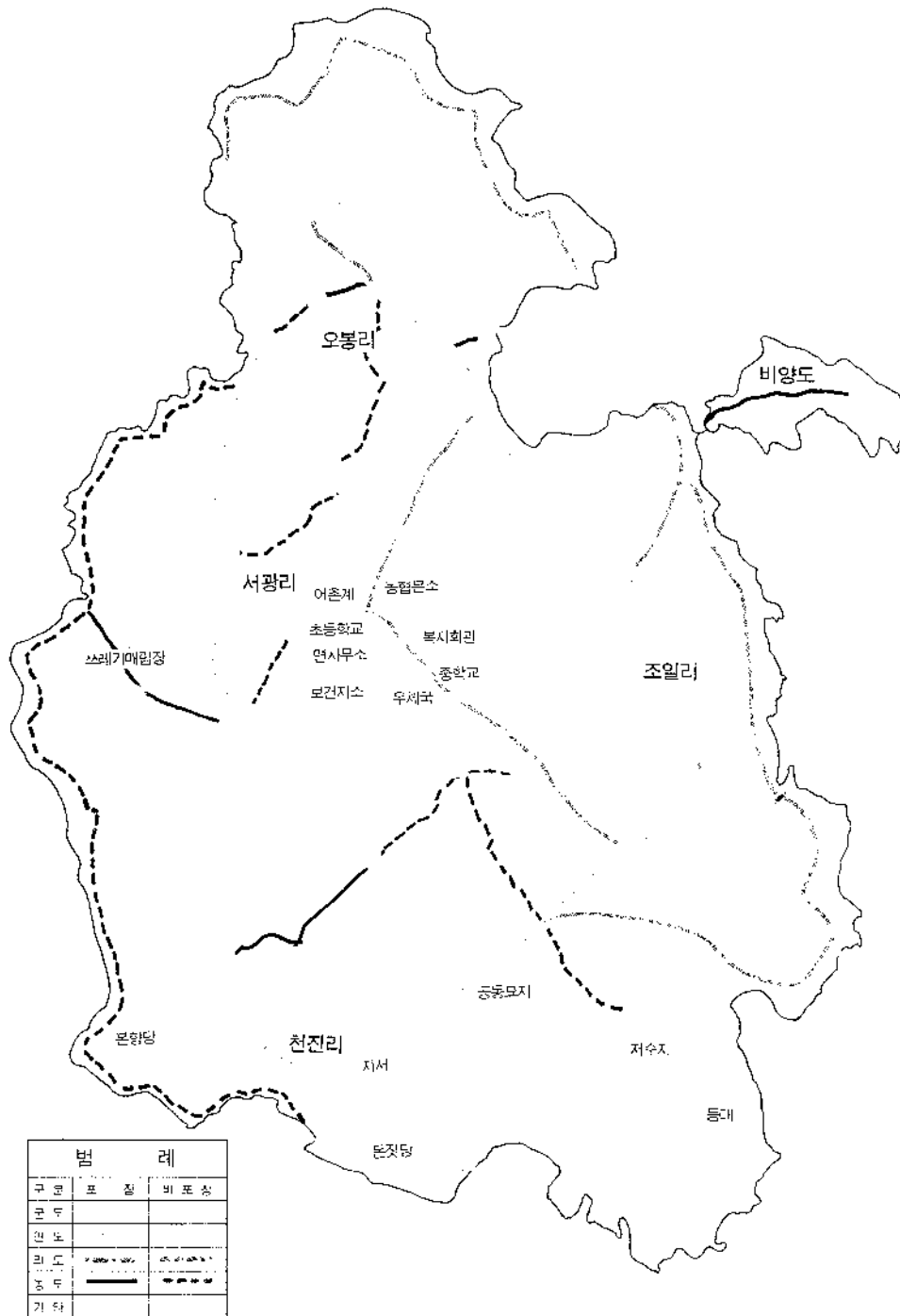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나. 해운 현황

입출항척수 (일최대)	주 요 입 하 명	입출하량	교 역 지	여 객 선 운 항 지	비 고
10척내외	생필품및 건 재 품	20%내외	성 산 항 세 화 항	성 산 항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도로망 현황도



다. 시설 현황

방파제측조	방파제보강	물양장시설	준 설	매 립	비 고
200m	42m	160m	9,985㎡	1,730㎡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3. 상수원(저수지) 현황

위 치	저 장 가 능 량 (TON)	조 성 년 월 일	급수인구 (가구/명)	1인 1일 급 수 량
연 평 리 382 일대	50,000	1. 최초조성 : 1968년도 2. 확 장 : '91.9.30	621/ 2,243	180ℓ

※ 자료 : 북제주군 건설과, 사회진흥과

4. 지하수 개발현황

- 조사위치 : 연평리 503-2 (W-32공)
" 419 (W-33공)
- 조사일시 : '92.12.11
- 수 질 : 염분농도 350 ~ 500PPm (기준 150PPm)
- 채 수 량 : 740톤/일
- 수 위 : 33m
- 용 도 : 염분농도 과다로 잡용수로 사용(농축용수로 활용방안 검토)

5. 장래 용수 수요 추정

- 용수수요 추정 기준
 - 2000년까지는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 및 우도 발전계획 반영된 인구, 관광수요(관광객, 객실수), 농지면적, 가축 수 등의 지표를 토대로 일평균 이용량 기준으로 추정(1992년 1인 1일 180ℓ → 2000년 1인 1일 215ℓ로 증가 전망)

- 용수 수요 추정

구 분	1992	2001	비 고
· 생활용수			
- 추정인구(인)	2,243	2,100	
- 1인 1일 급수량(ℓ)	180	215	
· 관광용수			
- 관광객(인)	10,000	50,000	
- 객실수(민박, 실)	10	60	
· 농축용수			
- 땅콩(ha)	102	140	
- 맥류(ha)	270	230	
- 채소류(ha)	43	50	
- 소(두)	255	350	
- 돼지(두)	126	160	

6. 쓰레기 매립장 현황

위 치	지 목	지 적 (m^2)	소 유 자	조성년도	매 립 가 능 량	향 후 매립기간
연 평 리 2365	전	1,706	오봉리932 강길홍	1990년	7,300 $\%$ (1일4톤)	1994

7. 폐유수집장소 현황

마 을 별	위 치	수집가능량	비 고
우 도 면 (계)	6 개 소	12 $\%$	
천 진 리	동천진동	2	
서 광 리	하우목동	2	
오 봉 리	주 흥 동	2	
오 봉 리	전 흘 동	2	
오 봉 리	하교수동	2	
조 일 리	비 양 동	2	

교육·사회복지시설 분야

1. 초등학교 학생 현황('93)

학 년		계	1	2	3	4	5	6	특 수
학급수		7	1	1	1	1	1	1	1
아 동 수	남	94	14(2)	14	14	11(1)	20(1)	21	(4)
	여	96	13	7	11	21(1)	23(1)	21	(2)
	계	190	27(2)	21	25	32(2)	43(2)	42	(6)

2. 중학교 학생 현황('93)

학 년	1	2	3	계
학 급 수	1	1	1	3
남	20	26	18	64
여	17	20	29	66
계	37	45	47	129

3. 마을별 폐가구현황('93. 12. 31 현재)

단위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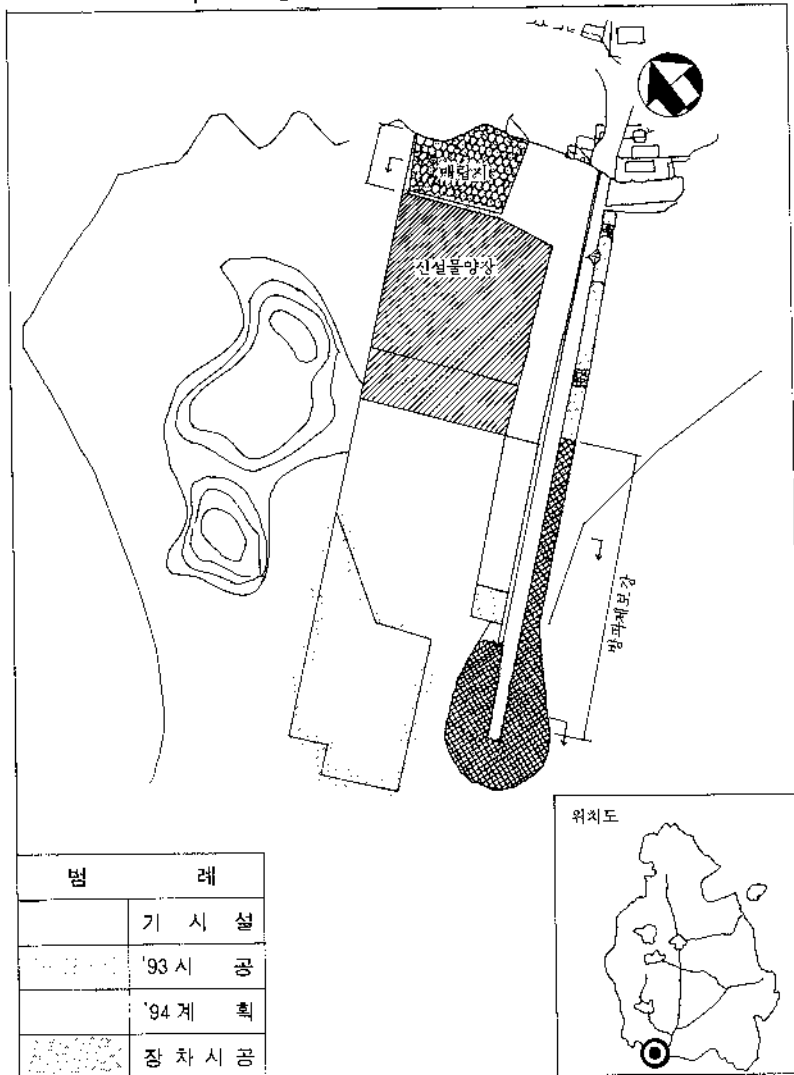
구 분 마을별	주 택 수	폐 가 수	비 고
우 도 면 (계)	618	15	
천 진 리	139	3	
서 광 리	126	3	
오 봉 리	207	7	
조 일 리	146	2	

※ 자료제공 - 우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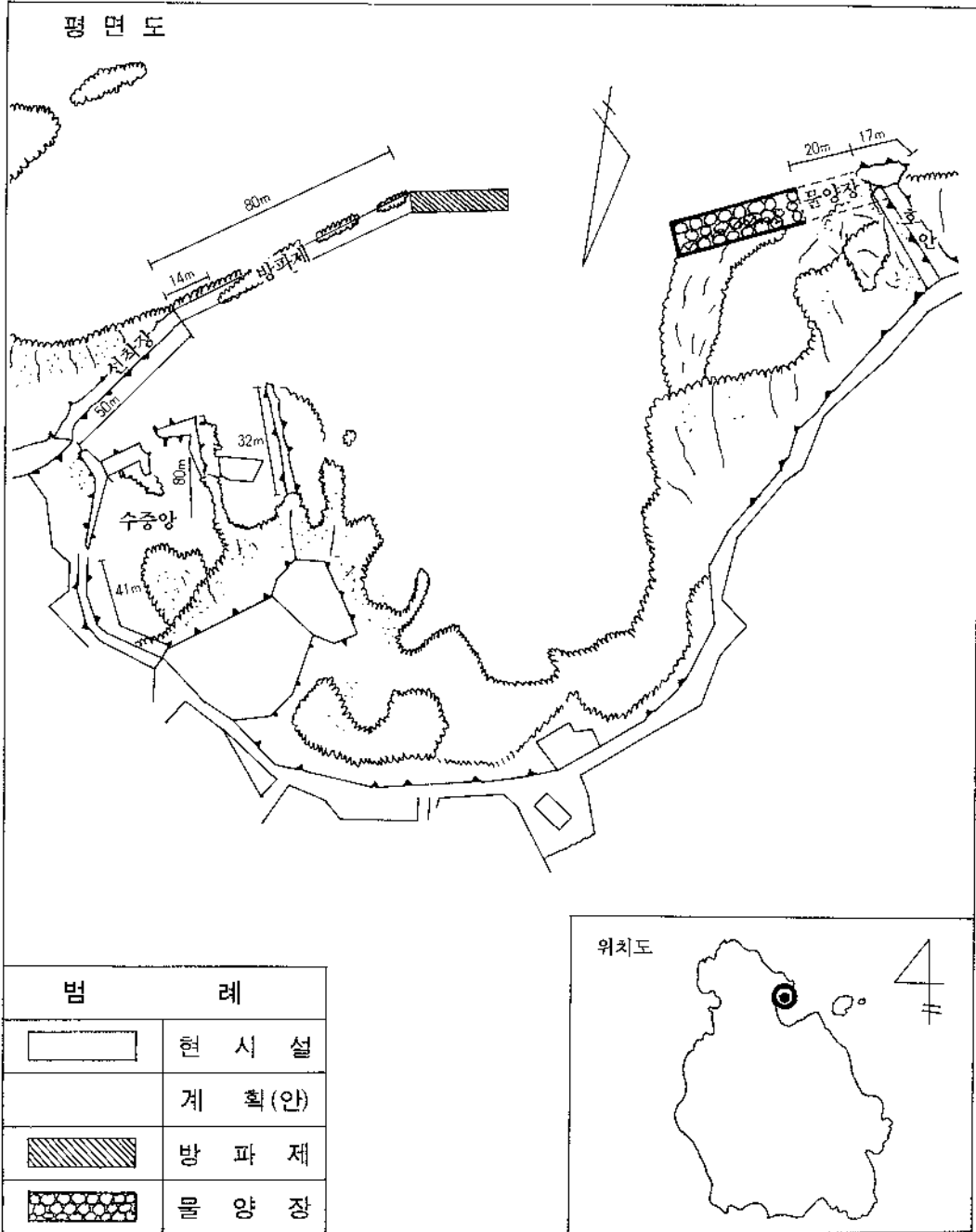
4. 민박 지정기준

- 건물면적 : 66㎡ (20평) 이상 주택
- 시설기준 : 방. 2.5평이상
- 건물내 외부시설 환경이 양호한 주택중 부대시설(전화, 화장실, 욕실)이 갖 추어져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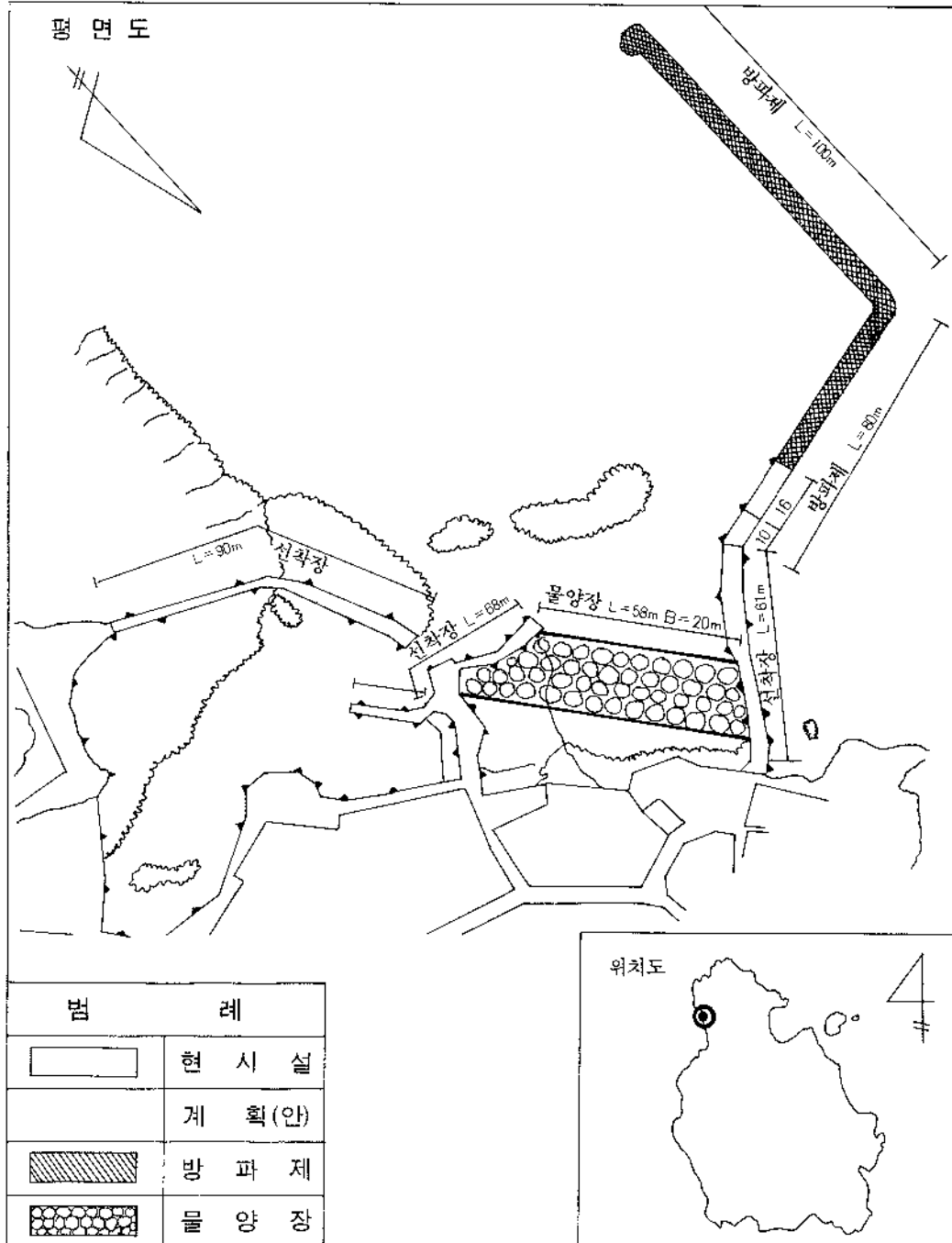
우도항(천진항)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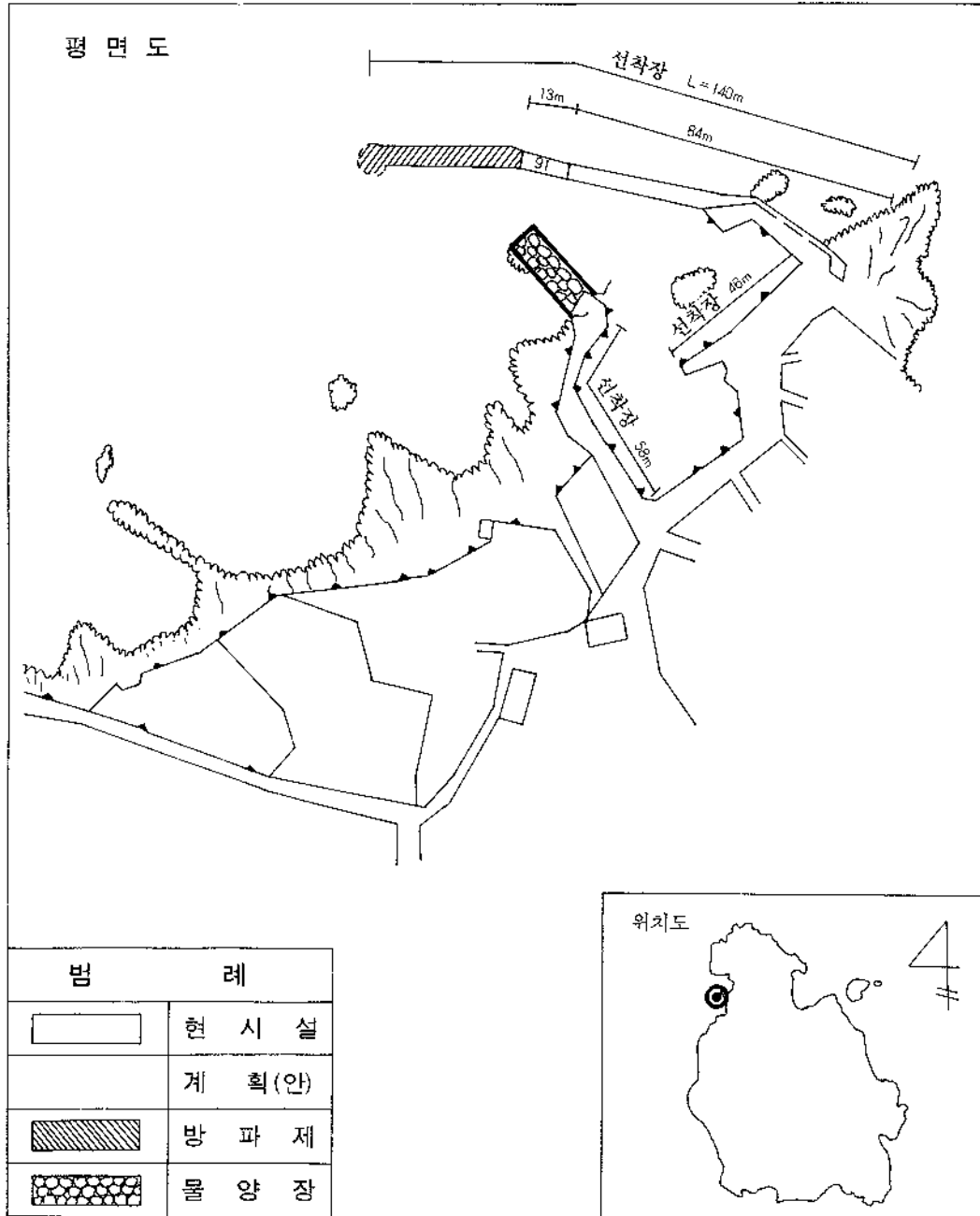
하 고 수 동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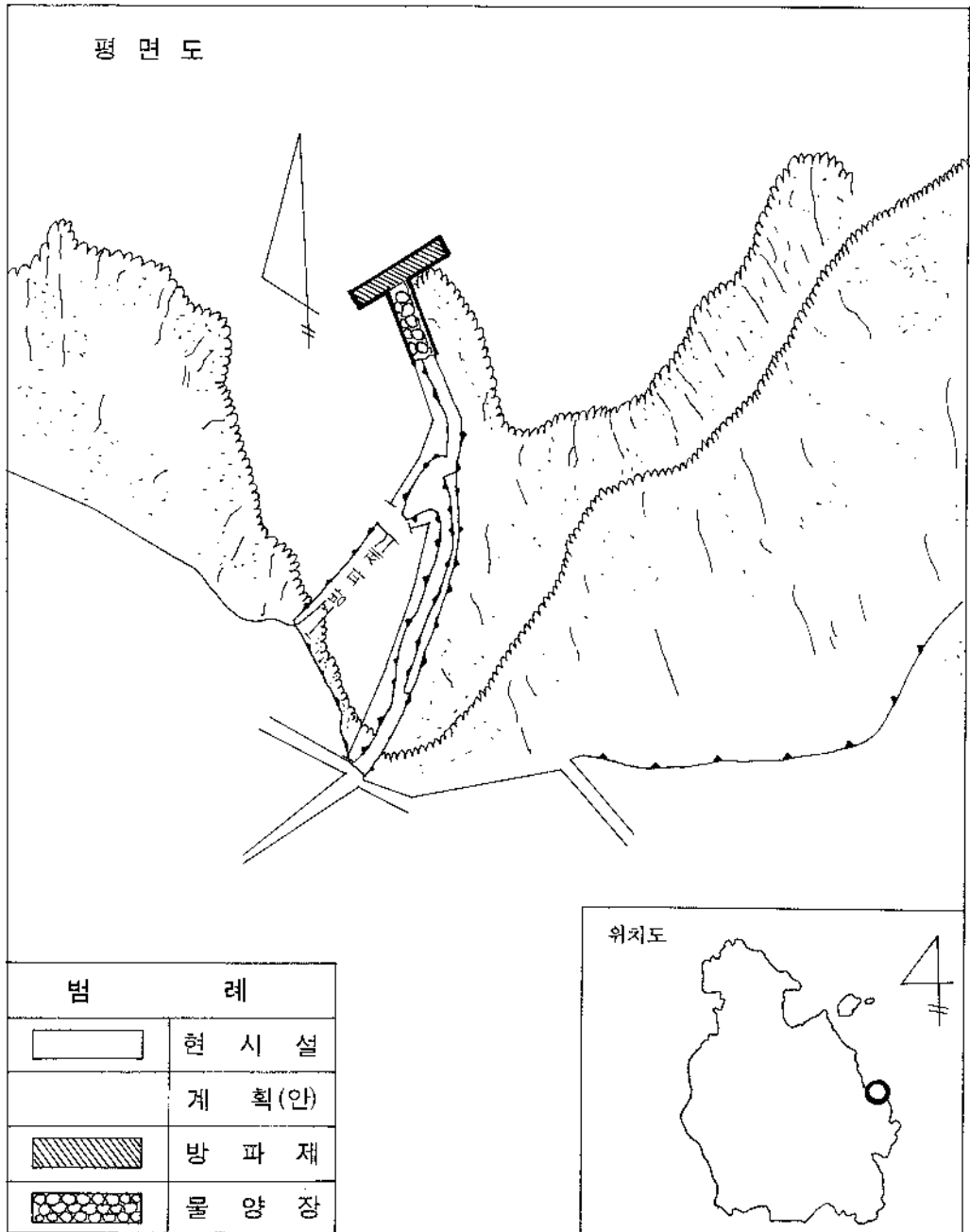
전 흘 동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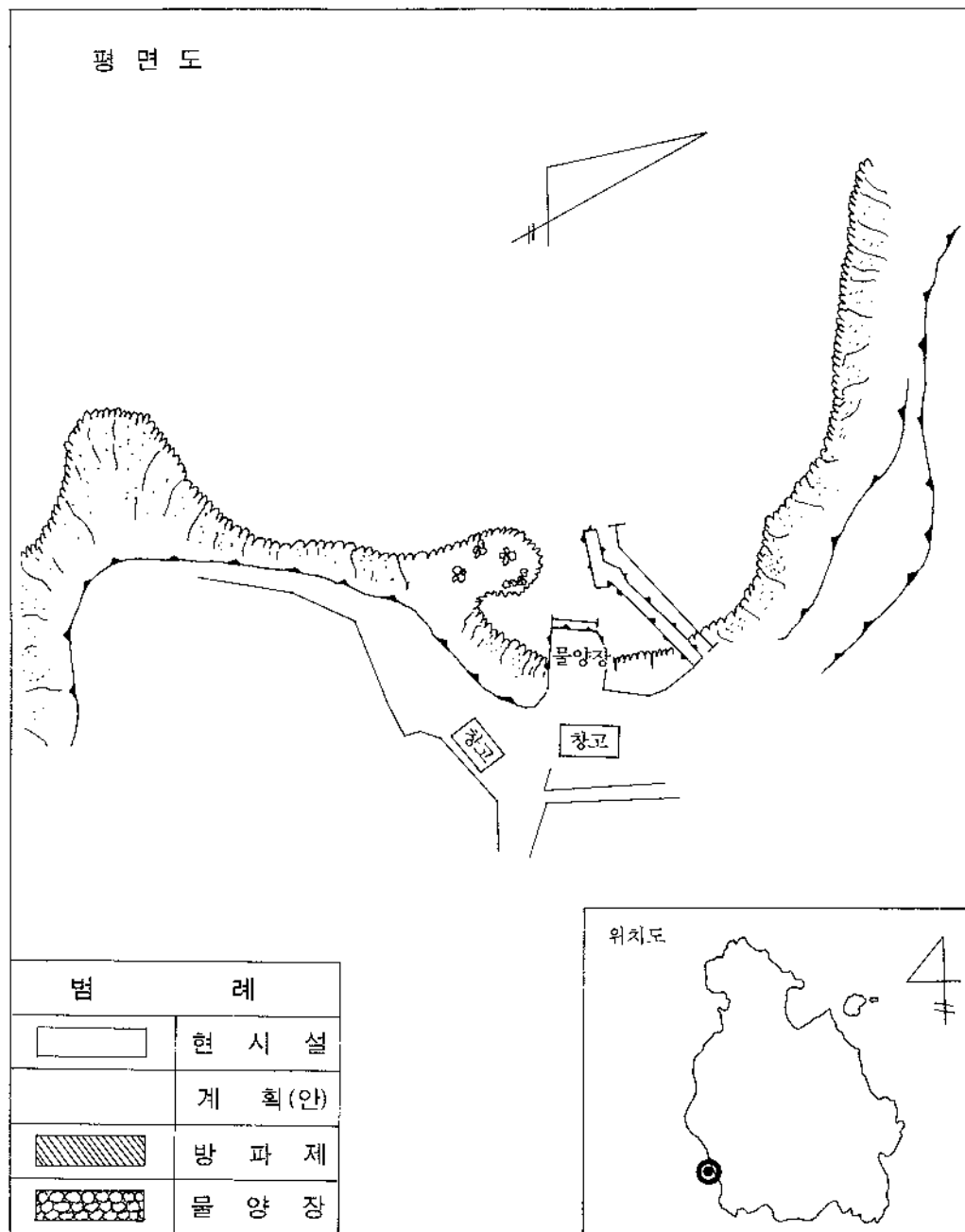
주 흥 동 항



영 일 동 항



서 천 진 동 향



비 양 동 향

